

# 성도의 빛 9.10

“Sôngdo-wi Bôt”



頭流山 兩端水 네든고 이제보니

桃花 뜬 맑은물에 山影 초차 잠겨세라

아히야 武陵 이어테요 나는엔가 하노라

△조난명지음▽

△한기선장로그림▽

# 성도의 벗

第3卷 第9號

순 서

1967년

卷 頭 言 .....	裴 一 文	2
大管長 말씀 .....	데이비드 오·맥케이	6
敎理問答 .....		9
□特 輯□韓國地方大會 .....		10
대관장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		42
특별 연재...엠마 레이 릭스 맥케이의 추억.....		50
系 譜 欄...가족 기록서 기재 요령...박 재 암...		55
지 부 소 식 .....		59
배달된 故 김호직 박사님의 편지 .....		62
이달의 찬송 .....	정 대 판	64
자유를 찾아서.....	이 영 범	66
역 원 탐 방.....(許 採 형 제 편).....		71
장노정원회 캠프후기 .....	김 석 모	76
성 경 동 화 .....	김 양 자	79

# 龍頭蛇尾

머리는 용이되  
꼬리는 뱀이라

宣敎部長  
裴 一 文



흔히들 시작이 좋으면 싸움의 반은 잡아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떤 일의 웅대한 시작 곧 그것이 그 일의 성공 여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념에 철저한 사람들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화려한 결혼식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一見하여 보면 일단은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웅장하며 그럴 듯한 행렬이나 의식으로 시작된 운동 경기도 흔히 있는가 하면 새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 중에는 세세한 부분에 까지 신경을 써가며 되도록이면 자기의 열성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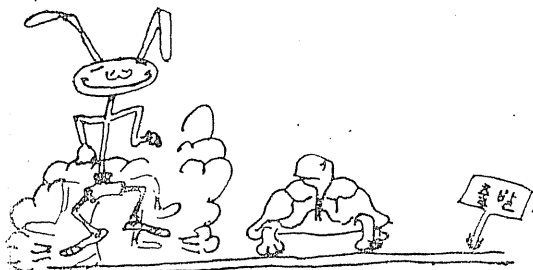


태도를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서나, 어떤 일의 경우를 막론하고 시작은 중요하며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케하는 경우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방식은 어리석고, 어린 아이 같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 태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함양을 기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충실하며 헌신적인 말일 성도에게서 그런 점이 발견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말일 성도들은 용두사미라는 한국의 격언을 명심해야 겠읍니다. 즉 지나친 과장과 격정으로 시작한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영애가 사람을 현혹하여 결국은 쇠약하게 만듭니다. 명성이란 그것 자체가 유지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위험천만이며 파멸의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하는 이야기

에 보면, 토끼는 뛰는 데 있어서는 재주꾼이었습니다. 몸을 예쁘게 도사릴 줄도 알았으며 때에 따라서는 변화있게 강충강충 가볍게 뿔줄도 알았읍니다. 그리하여 보는 이의 못 시선을 한 몸에 모았읍니다. 그러나 둔탁한 한 덩어리의 흙과도 같은 거북이는 수줍어 하는 듯 하였으며 특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더구나 굼뜨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토끼와의 경주에서의 승산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읍니다.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토끼경은 바람같은 속도로 매섭게 달려 실로 보는 이를 경악과 황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었읍니다. 거북이는 변화없이 꾸벅꾸벅 계속하여 따라 갔읍니다. 한발한발 쉬지않고 꾸준히, 같은 보조로 경주에 임했읍니다. 경주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나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에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도 없었고 자기가 지닌 지구력을 바탕으로 빠르지도 또 그렇다고 느리



지도 않은 속도로 경주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자기의 실력을 지나치게 믿고 까불고 자랑하던 토끼가 결국은 거북과의 경주에서 패하고 만다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토끼의 시작은 열의와 승리에 대한 집념으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승점에 이르기 전에 그는 낮잠을 즐겼던 것입니다. 재능을 소유한 토끼가 승리자로서의 '공적'과 '명예'에 대한 꿈을 만끽하고 있을 때 도저히 가망도 없었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거북이의 승리는 결과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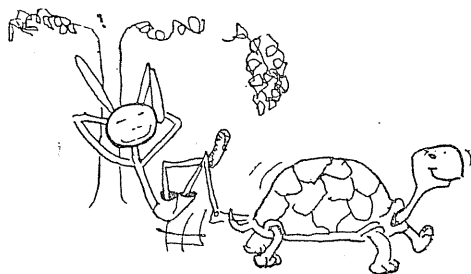
한국의 역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도 같은 예로 가득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원균을 토끼에 비한다면 명예와 영광으로 절철된 생애를 마친 이 순신을 거북의 좋은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탕자의 비유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은 환대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을 잘못 잡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 곁에서 특별한 명예나 칭찬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루의 일에만 열중하던 큰 아들이 일시적인 질투로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하여 한 일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어도 역시 위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형은 노하여 돌아온 동생을 만나기조차 원하지 않았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한 보상은 받



시 있는 빙이라고 아들을 칭찬한 다음에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눅 15 : 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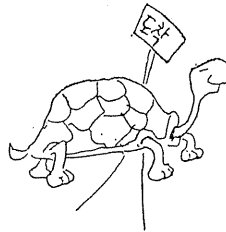
얼마전 이 땅에서 선교사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교사와 면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말하는 중에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젊은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두드러진 때가 없던 바로 그 선교사였습니다. 주님의 종인 선교사로서 일하던 지난 날을 되새기며 앉아 있는 그에게서 그가 선교사로서 성공한 비결은 결코 일시적인 분발로 이룩된 것이 아니며 매일,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지의 결실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위에서의 억압이나 주위의 칭찬을 고려하지 않고 기꺼이 직책에 응할 수 있으면서 또 그것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름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뢰를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말일 성도가 갖는 최상의 목표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 처럼 우리들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후 4 : 6~8)



## 숭고한 신의 희열의 기쁨



데이비드 오 맥케이

우리는 가정이 진정한 개인 발전의 中心이요,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다든지 국가가 至上이요, 또 個人에 대한 구속력은 국가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습니다. 가정은 개인 발전의 중심이며, 그 가정의 온갖 의무는 결국 가정의 기둥인 부모에게 지워집니다.

교회는 子女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보조 기구가 됩니다. 이런 點에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교회나 국가가 至上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되리라.

또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기도하며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 : 26, 28)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律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의 양육을 철저히 말씀으로서 人間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신의를 얻게 됩니다.

신뢰를 받는 처리의 銀行員 市職員 또는 政府 高位 官吏가 公正하게 取扱해야 할 他人의 金錢을 횡령한다면 그는 구속되어 감옥행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政府의 秘密을 다루는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그는 조국을 배반한 사람, 혹은 역적의 이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태만과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빼돌어진 욕망으로 자녀를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결과

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모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책 68 : 25)

저는 이제 가정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건 몇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독 젊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저와 동 연배의 여러분 부모와 남편되시고 아내되시는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첫째 : 이 말씀은 특히 젊은이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의 기초는 결혼 전부터 놓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차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될 사람에게 충실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조성되고 또 무르익어야 하는 때가 바로 십대이어야 하며 연애하는 시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충실하다는 어휘의 뜻은 자신을 경결하게 유지한다는 말이며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결혼식장에서 영원한 동반자와 처음으로 키스할 때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행동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 동반자의 선택은, 감정도 중요 하지만 바른 판단과 영감에 의한 결과이어야 합니다.

셋째 : 결혼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쾌락으로 끝나거나 첫번째로 닦친 난관에 주저 앉고 마는 종류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차원 높은 결혼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젊은 남녀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생활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넷째 : 결혼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랄 수 있는 자연의 육아실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옷을 만져보려고 앞을 다투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 : 14) 한 가정에 있어서의 행복은 아버지의 무릎을 타고 노는 아이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난로가에 둘러 앉아 즐기는 아이들의 재롱으로 고조됩니다.

다섯째 : 항상 가정에 경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님의 불시의 방문을 받고도 당황치 않고 그를 초대하여 기분 좋게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 부부 시로가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칠고 듣기 흉한 욕설은 말일 성도의 가정에서는 들리지 않아야 하며, 그런



생각조차 마음 속에 깃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 자제력의 미덕을 배우십시오. 자제력의 결핍은 불행과 불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녀를 그대로 방임하여 제멋대로 활동하여 다른 가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엄하게 인정없이 다루라는 말씀으로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매질을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은 바로 길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덟째 : 결혼시에 가졌던 감정을 계속 지녀서 가정을 원만하게 꾸미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런 감정의 발로입니다. 서로가 진실하겠노라고 성약한 이상,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습성을 기르십시오.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하십시오. 말일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 생기는 순화된 감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자녀에 대한 사랑과 확신 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아홉째 : 자녀들이 문학, 음악 혹은 보아서 도움이 될만한 영화 등과 접촉을 갖게 하십시오.

열째 :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 가르치며 충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이상 두가지, 즉 개성의 구축과 봉사 정신을 터득하게 하십시오.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조성할 수도 있으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충실하여 이루면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기에게 쏟은 희생과 친절의 일부를 갚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오. 또는 진정한 부모라면 누구나가 희원하는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한다는 신념을 갖게 하십시오.

아들과 딸로서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명예에 관계되며 자신의 개성과 인생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고상한 부모의 아들로서의 의무, 참다운 딸로서의 의무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로 삶에 있어서의 지고의 목표인 인격이 完成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인격은 가정에 있어서의 예의 및 이해를 통하여 발전되며 교회 봉사를 통해서도 발전됩니다.

말일 성도의 가정을 세우고 계신 부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찬탄하여 마지않는 가정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내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화장(火葬)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동구지부 방 춘 성 형제

답 : 사람의 영육은 육체와 영으로 형성되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영육을 되찾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육의 전체를 형성하는 지분이며 영원한 지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의 장막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일 성도들은 육체를 정결케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육체는 술, 담배, 커피 등과 같은 중독성있고 해로운 물질로 부패하거나 상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문신으로 우리 육체의 외관을 더럽혀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존중하고 보살피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관련하여 교회의 대관장회는 화장으로 시체를 태우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교리와 성약  
88 : 15~16

교린도 전서  
3 : 17

“교회에서는 죽은 자의 유해를 처리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결코 화장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시체를 땅속에 매장하는 방법이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육체를 파괴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되며 육체는 본래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체가 화장으로 처리된다면 화장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 기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시서 제 17호  
(1944년 93페이지)

해답자 선교부장

1967 년도  
제 3차(8월)

# 한국 지방 대회

—대회 주제 : 가정복음교육, 순종—

매 3개월 마다 계획된 한국 지방대회는 그 횟수를 거듭하며 따라 우리들의 신앙이 축복받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서울 지방대회는 인천지역을 포함한 재경 일곱지부 및 지역의 600여 성도의 성향속에 8월19일 오후 6시부터, 선교 본부와 동부지부에서 신권회 대회와 상호부조회 대회가 각각 열림으로서 시작되었으며, 남부(영남)지방대회는 8월26일 오후 6시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여러 지역의 성도들의 성향속에 부산 동구지부와 부

산지부에서 신권회대회와 상호부조회 대회가 열림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시작될 복음교육을 주제로 한 신권회 대회와 순종의 덕을 주제로 한 상호부조회 대회는 각각 신권과 덕을 행사하고 쌓기위한 열의로 성향을 이루었다.

주일인 20일과 27일의 제1, 제2총회에서 각 곳에 흩어졌던 성도들은 말일성도의 이념과 신앙에 대한 준비된 말씀으로 모두 흐뭇했었다. 청소년대회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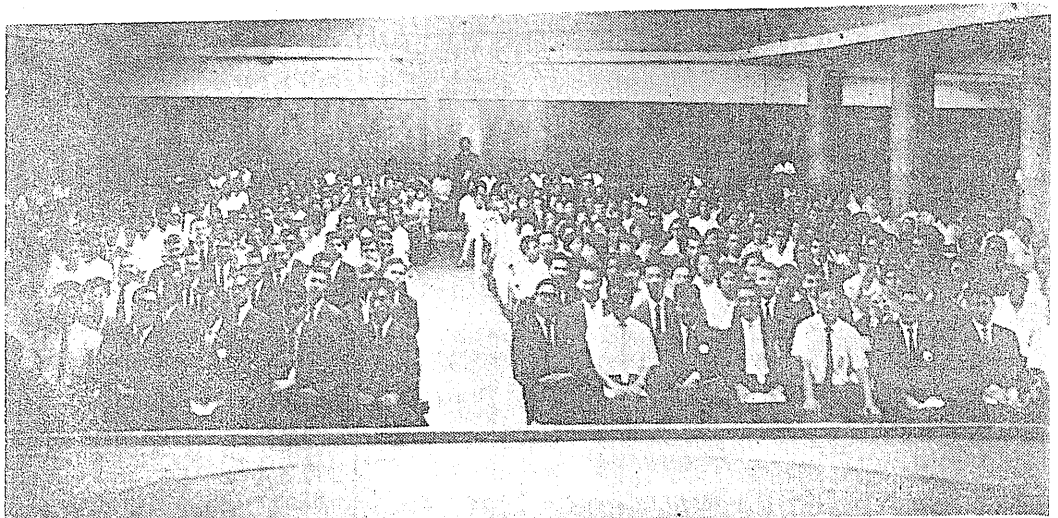


사진 : 서울지역 지방대회 참석자

장 제1보조 카터장노에게 선교부장의 감사장이 수여되고 청소년대회의 사진전시도 하였었던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 부장단 개편과 7명의 장노신권 지지의 커다란 일이 있기도 했었다.

즉 지방부장 제1보좌이었던 한 인상 형제는 아론신권 담당 평의원직을 맡게 되었고 영남지역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재수 형제가 지방부장단 제1보좌로서 봉사하게 되었다. 한편 아론신권 담당 평의원으로 수고 하던 황 종섭 형제는 지방부장단 서

기 직 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장노신권을 받은 일곱형제들은 지방 부장단 제1보좌로 부름을 받았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있는 이재수 형제, 동부지부의 상향회 회장단과 지방부 장노정원회 서기직에 부름 받은 이 종훈 형제, 서부지부 및 지방부 제보위원 김 사원 형제, 서부지부장 제2보좌 김 과영 형제, 기초교리반 교사로 봉사하는 김 명중 형제와 청운지부장 제1보좌이 기훈 형제, 제2보좌 이영환 형제들이다.

## 1967년 8월 20, 27일 제1총회

■.....오래참고 견디는 의로운 생활은 진실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

■.....그리고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

# 義 로 운 生 活

선교부장

배 일 문

제 생각으로는 한국 지방대회때 수적으로나 대회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만큼 훌륭한 분들이 모인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세계 전역에 걸쳐 보급되는 미국 신문(편집자주: 성조지)에 물몬에 대해서 난 기사를 말씀드림으로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서론으로 삼겠습니다.

“솔트레이크 시에는 히피족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히피족이 무엇인지를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히피족이 없겠지만, 비슷한 것을 대라면 깡패라고나 할까요. 그 밑에 부 제목으로 “물몬 신자

들은 인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되어있는 이 기사는

“솔트레이크의 젊은이들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히피족을 십대의 젊은이들에게 암적 존재라고 평하고 있으며, 인생의 진지함에서 이탈되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지도 않는 진지한 청년들이다. 물몬 청년들의 이름은 절대로 경찰서 게시판에 나붙는 일이 없는 훌륭한 젊은이들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물몬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어찌서 이렇게까지 좋은 평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믿고있는 종교를 그대로 그들의 가정과 사회와 인생에 적응시켜서 사실화하고 생활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 53개국에 만 삼천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며, 2백6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몰몬교는 그들의 총 본부를 쉘트레이크에 가지고 있어서 쉘트레이크市야말로 영적인 총 본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쉘트레이크의 하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전국적인 통계가 64%인데 비하여 유타주는 74%로 10%가 높는데 이것은 우리 몰몬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쉘트레이크의 젊은이들은 작년도에 강도, 약탈, 강간, 살인 등으로 경찰서에 붙들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이들에게는 미니 스커트, 탁클볼, 술, 담배 심지어는 커피 까지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몰몬의 젊은이들에게는 교회에서 개최되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나

쁜 것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허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신문은

“몰몬 신자들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주일날에만 교회에 가는 주일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몬 사상이란 신앙을 매일 생활화하는 매일의 종교입니다.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바치고 헌신적으로 교회일을 돌보며 때로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회선의 정신을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 신자라는 대명사는 어디를 가나 하여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을 향해 발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몰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인생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바울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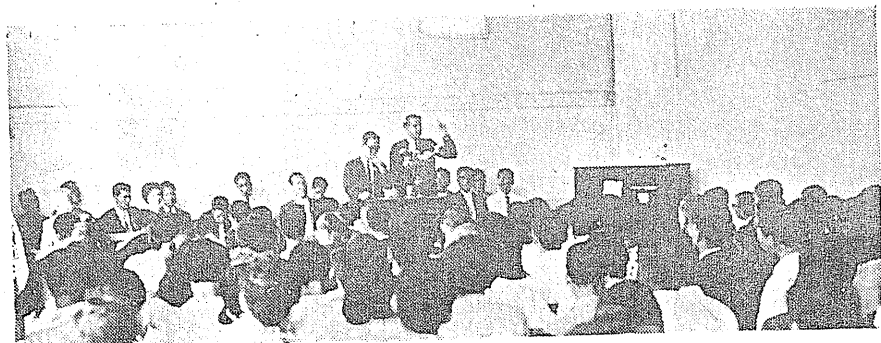


사진 : 부산동구 지부서의 남부지방 대회



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고전 2:12~14)

바울께서 로마에 살고있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한국)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다. 내가 증거 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새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로마서 10:1~3) 바울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글은 두가지로 강조하고 있으니 그 하나는 세상을 중심으로 한 의로운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로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적 유대인들은 그들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사회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의로운 것을 세우고 확보하고자 애써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의롭고 좋은 것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 것이 아닌 인간들이 세운 의로움의 길이라던가, 인간들에 의해서 기초가 된 의를 발전시키고 찾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일찌기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관계이며, 도덕(의로움)은 내적 관계의 외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많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과는 다른 것이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의로움고, 아름답고, 선한 것은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의로운 생활은 진실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세상 사

람들은 물론 교회의 지도자에게 와서 묻기를 “우리는 경찰 기동력과 법원과 학교 등의 모든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길래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훌륭한 젊은 이들을 양성하고 있습니까?”고 물어옵니다만 우리는 신권의 회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의로움으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교육시키는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에서 말하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신전입니다.

많은 시대를 두고 신전이 세워졌읍니다만 신전이 하나 하나 세워 질때마다 그 세우는 의의와 목적과 집행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성스러움과 의로움과 영광을 보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부리감 영 대관장이 개척자들을 이끌고 사막을 지날 때에 그는 고대 예언자 모세,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이 짓는 집 문에 “주님을 섬기라”는 글자를 쓰도록 했으며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리감·영 대학의 기초 정신도 성스러움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화목치 못한 원인을 캐어보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않는 데서 그러한 불행이 초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교회를 회복할 때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나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상상에 담겨있는 의를 찾고 있나니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고 나와 멀리하였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가져 오겠다는 불타는 욕구 없이 지상에 낙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이란 것은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찾고져 애쓰는 만큼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으면서 계명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땅에서 우리의 첫째의 과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을 돈독히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어 추시는 데로 따라갈 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신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간증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방방곡곡에 퍼져 있고 있는 축복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복음에 충실하도록 노력합니다. 한국 땅에서

진전되어가는 일을 볼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자는 뒤로 쳐지고, 신앙이 돈독한 자들은 발전해서 전에 지으셨던 큰 왕국을 이땅에 세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간증 하노니 이땅과 온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절대적인 평화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성스러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불안전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받들 때 인간이 할수없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화평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낡고 폐허한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밝고 소망에 찬.....■  
 ■.....희망적인 것을 심고, 정리하고, 다짐하는 때라야 하겠습니다.....■

## 용 기 와 순 종

지방부 아론 신권 담당 평의원 한 인 상

근래로 저에게는 무척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선교사를 마치고 결혼을 했고, 또 신비스럽게도 딸을 낳아서 저의 어머니를 할머니로 승격 시켜드린 일입니다. 이렇게 기이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저와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교회에서 여러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맡은 일을 협조해 주시고 어디에 임하던지 친형제로 사랑해 주시고 친 벗으로 아껴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말로는 표현 할 길이 없지만 제가 진실로 느끼는 감사함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당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애쓰던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행복하고 어렵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오늘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소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는 것이 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맞고 또 한국지방대회 연차대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경건되고 조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임하기 몇시간 전에는 역시 소란스런 세상에 속해서 살았고 많은 문제에 부딪겨 살았습니다. 교회 역원의 자리를 맡은 사람의 하나로서 여러분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면 그 시간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아야 했고 그러한 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힘이 되어진다면 영향은 던져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을 때에는 역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되었다는 기쁨으로 마음 아파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이든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만 떠들고 혹은 안식일이나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마는 조금도 어둡고 소란스런 곳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생활을 쫓아다니듯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형제요, 혹은 자매라고 하지만 아무도 다정한 벗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혹은 어려움에 있을때 그 사람에게 직접 힘이되어 주지 못한다면, 혹은 자기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뜨거운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던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해가 바뀔때 따라서 각 지부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저보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연령, 배움이 높지만,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가정사를 의논할 수 있고, 어려운 가정사를 나누는 가운데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그토록 두터운 우정과 형제애를 키울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그러한 우의가 삼천을 헤아리는 한국 성도 각 개인에게 임해서 서로 염려하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밀어줄수 있는 그러한 우의와 형제 자매애가 향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것이라도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사항들을 낭비하는 현상을 목격하곤 합니다.

중세에 있었던 이상주의자들을 힐책하는 이슥의 우화중에는 어떤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느라 별을 따라 다니다가 자기 발밑의 시궁창에 빠졌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이념을 내세우고 살면서 우리 발앞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혹은 나의 친구들의 사항, 그들이 필요로하는 절대적인 것에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만사에는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의 절기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깎아

내리고 허물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꽃도 필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방대회란 이름 밑에 모인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때 이겠습니까?

오늘은 낡고 폐허한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밝고 소망에 찬 희망적인 것을 심고, 정리하고, 다짐하는 때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큰 것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너무 높은 이념에 매여서 자기를 다 낭비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을 알뜰하게 메꿀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만났을 때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복음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우리에게 마련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숨김 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절실하게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생사 고락을 같이하는 형제, 자매, 친우가 되어서 의롭지 않고, 외로운 시간을 혼자 갖지않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이 시간으로 부터 준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7월 27일 부터 일주일 동안은 교회가 운영하는 브리감·영 대학 농구선수들의 한국에 와서 훌륭한 전과를 올리고 돌아 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경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11명이 코트에 번갈아 나가서 고도로 훈련된 기술과, 정신과 체

력을 가지고 운동에 임해서 자기의 최선을 구사했지만, 이들이 거의 체육인으로서 이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하는 시간 전체를 운동을 관리하는 코취에게 일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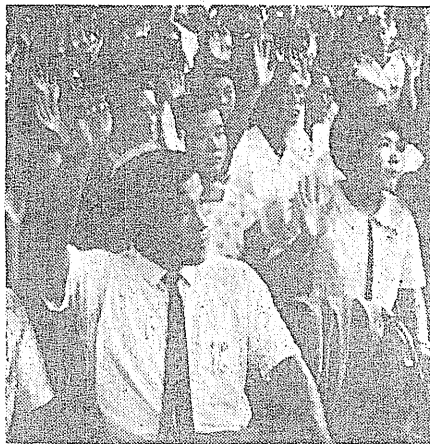
코취가 일러주는 일이 자기에게는 불가사의 하고 불리한 것이라 느껴지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코취의 말을 듣는 순종과 협동의 정신이었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말씀 하시기를 무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기를 밝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믿고 따르던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지도자는 청소년 에게도 필요하고, 나이 많은 한아버지 성도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을 이

루고 있는 아버지인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고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무리앞에 옳바른 목자요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쪽 으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지도자와 무리 즉 양과 목자가 함께 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수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약점이 다른 사람앞에 들어 날까바 겁내고 있을



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자기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에 자기를 제삼의 방향에서 바라보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기보다 더 아끼고 신뢰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예기는 복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도로써 서로 마음을 허락할 수 있고 정직한 것을 나눌수 있는 벗과 성도와 형제 자매가 되자는 예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면에 것을 바라보면서 꿈만 꾸거나 울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결국 큰 것인 우리의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려고 노력하는 모든 지도자를 절대적인 신앙과 복종심을 가지고 따르자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또 작으나마 적은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하나로서 모든 지도자의 연대 책임을 공통적으로 느껴야 하고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발전이라던지 우리를 발전 시킬수 있는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합당한 생활을 이루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의 안내를 받아서 옳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고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의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것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가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과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상향회 주제 (67-68년도)

“무릇 창세 이전부터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 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 : 20-21)



.....하나님께 봉사한 결과를 고할때 부끄럽지 않도록.....

.....성과 열과 힘을 다 하겠습니다.....

## 일할 수 있음을 감사 합니다

오늘 이러한 증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거룩한 신권과 하나님의 결심에 의한 직책을 가진 분들의 임명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또 종교적으로 대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방부장님을 보좌하게 된 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로 공을 많이 세웠고 또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 발전에 노력하신 선배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 봄으로써 과거의 여러 가지 공을 세운 선배들의 실적을 일반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너도 더욱 노력해서 우리 교회의 발전에 공헌해 보라는 생각으로 불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면 생각하면 이 교회의 발전은 선교부장님이나 지방부장님의 뜻만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 형제 자매님에 의해서만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양이를 그려 주시면 고양이가 될 것이고 호랑이를 그려 주시면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지방부장 제 1보좌

이  
재  
수

저의 책임을 전가 시키기 아니라, 이 교회의 발전은 여러분의 노력과 성의와 열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몇 사람에게 의해서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봉사한 결과를 고할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과 열과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우리 교회의 「성경」과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교회에 봉사할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1967년 8월 20일, 27일 제2총회

- .....음식을 담기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하듯이 성신.....■
- .....을 받기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여야 하며 죄의 씻음을 받.....■
- .....기전에는 성신의 권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罪 사 합 을 받 자

韓國地方部長 車 鐘 煥

“주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되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지 않고는 계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니파이 일서 3장7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계명은 성취될 수 있는 것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신의 충분한 은혜를 받기위해서는 첫째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신을 받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듯이 성신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며 죄의 씻음을 받기 전에는 성신의 권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씻음을 받기 전에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성신을 받기 위한, 그리고 매일의 우리 생활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어겨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가지 계명중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는 말씀이며, 둘째는 “우상을 받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하달된 저의 교회의 이야기에 의하면 “집회장소 내에는 시청각 교재물 붙이지 말라” 즉 예수

님의 사진까지도 집회장소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달되어진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기전에 우상을 섬겼던 형제 자매님들은 회개 해야되며 예수를 믿기전에 신사참배를 하신 부모님들도 회개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함, 사주, 이사할 날자를 보는 것들도 예수를 잘못 믿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첫째와 둘째 계명에 위배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을 섬김과 같습니다. 물론 부모 형제 처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이나, 하나님보다 더 이들을 사랑함은 이것도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쁘게 만드는 것이며, 노하게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후에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살게하기 위한 질서로 주신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에 얽매인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세에 눈이 어두워서 교단에서 정처로 옮겨가서 지나친 욕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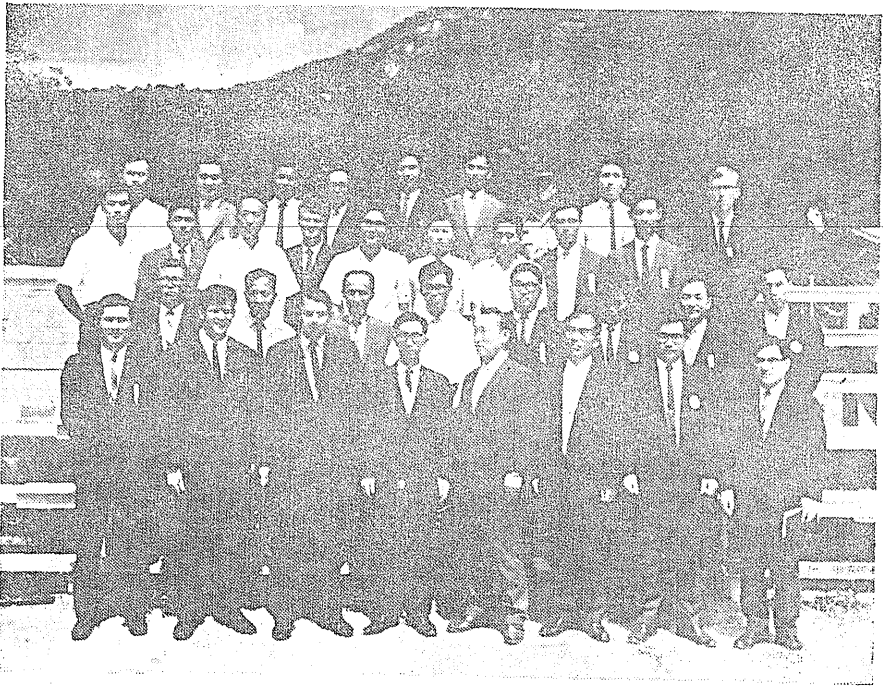


사진 : 선교부장단, 지방부장단, 지부장단 및 평의원 일동

로 끈 영생의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하지 맙시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히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단에서 말씀하신 것 일지라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애기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한 마디도 않고 운동에 관한 것, 무용에 관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농담 가운데에 “하나님”을 넣어 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곤 하는데, 이것은 부친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않는 것으로 보아서 망령됨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멜케세덱 신권도 “하나님의 신권”이라고 말하여 망령되이 불러질 것을 염려해서 이름지은 것이라고 합니

다. 의로운 기도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맞고난 분풀이로 “하나님 아버지 시여 저 너석의 코가 납작하게 해 주십시오”란 기도는 할 수 없는 것 처럼 의롭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부리감·영대학 농구팀이 경기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이시여 이 경기문 이길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란 기도가 아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싸울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란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 하기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부를수 있는 의로운 기도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의롭지 않는 기도는 응답될리 없으며 오히려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지 못할때 여러분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라”

집회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됩니다. 주일 하루를 주일답게 거룩하게 보낼 것이며 나아가서는 온 주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것과 내 것을 가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인의 것을 훔쳐 먹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집회시간만이 주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왕에 밀자고 할 것이니 복 받도록 믿읍시다. 니파이 일서1장 9절에도 “개명을 지켜야 복받는다”고 하셨으니 안식일은 훔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다섯째 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시로 험뜯었던 죄를 회개하여야 한국 교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왕고한 부모님일지라도 너그러나 자식이 에수를 믿고 보니 효도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의 불효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빈다면 유교를 믿던 어미들도 교회에 흥미를 가지고 나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부모를 섬기지 못함이 얼마나 큰 죄일 것인가는 명심하십시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중에서 직접 사람을 죽인 분은 없었습니다만, 낙태도 살인이요, 형제를 슬프게 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머누리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오래된 병자를 귀찮아 하는 사람은 모두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장로가 살인죄를 통곡하며 간증했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불충실하고 교회

에서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부인을 미워하는 살인죄 범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살인죄를 회개하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6·25로 인해서 성도덕이 문란해 졌다고 합니다. 소설, 잡지, 영화를 통해서 더욱 성도덕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몸밖에 있는 것이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꼭 같이 범하는 큰 죄입니다. 남녀간에 어지러운 생각을 갖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누가 감히 이 일곱째 개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서 이 기회에 새로운 직책을 갖도록 합시다.

여덟째,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돈을 쓰고 갚지 않는 분은 없으신지요. 외상으로 무엇을 먹고 갚지 않은 분은 없으신지요. 남의집 보리를 구워먹고 밀을 구워먹고, 감자를 구워먹고, 수박, 참외를 주인 몰래 따먹지는 않았는지요. 어느 목사가 성신의 감화를 받기위해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빈번히 어렸을때 수박 훔쳐먹은 생각이 나서 결국은 돈 얼마를 주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잘 되더라 기사를 외국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를 훔친 일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는 맙시다.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증상한 일은 없는지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일은 없는지요. 자기 못되는 것 보다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물건이 안 팔리는 것보

다 남의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을 배아파 한 때는 없는지요. 우리 속담에 “이웃 사촌이 땅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답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호랑이가 온다고 어서 부터 거짓을 배우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탐심은 만악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탐이 나서 간음을 하고, 물건이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하고, 명예와 지위가 탐이 나서 모략 증상을 하는 것입니다. 옷과 택시등의 재물이 탐이 나서 원망

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초래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불의한 일은 없는가, 남을 미워한 일은 없는가, 간음과 도둑질과 탐욕스러웠던 생각은 없는지 우리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 성신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 생활이 발전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아멘

1967년 바자 명절 안내

일시 : 10월 7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선교부  
대강당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오후 프로그램	3:30 괴상한 손가락 그림
1:00 각지부 가게 개점	대회
1:00 초상화 소묘	4:00 유명이 출몰하는 음
1:30 오락장	산한 뒷길 공개
2:00 꽃꽂이 컨테스트	5:00 홀리데이 레스트랑
2:30 화장법 실기 공개	개관
3:00 헤어 스타일 실기 공개	저녁 프로그램
	6:30 영화잔치 및 시상식

삼가 초청 하옵니다.

이 잔치는 상호부조회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잔치이니 부디오셔서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두둑한 돈지갑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부 상호 부조회 제공>



1967년 9월 19일, 26일 신권회

●.....온 종일 흠어졌던 가족이 함께 모여 복음을 이야기하며 미소 지.....●  
●.....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 사랑의 멧세이지

지방부장 제2보좌 지 영 달

사랑하는 兄弟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神權會大會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機會를 許諾해 주신 하나님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저는 福音의 生活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人間들을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느낍니다. 비록 우리 人間이 그러한 사랑을 하나하나 記憶하지 못하고 또 無限한 하나님의 사랑을 或은 實感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時間의 흐름과 地域의 變化에 關係 없이 이 地上의 모든 人類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러한 사랑을 直接 間接으로 人間의 子女나 擇하신 宗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福音을 통해 人間의 發展을 위한 기틀을 地上의 王國안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민에 回復된 우리 教會에서 갖고있는 組織은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되며, 우리 人間은 그러한 組織을 通하여 永遠히 進歩하고 主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神權會, 主日學校, 相互

向上會, 相互扶助會, 그리고 系譜委員會, 友情委員會, 長老定員會 等等, 現在 우리가 活動하고 있는 教會의 일은 모두가 神權을 根幹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內包하고 있지 아니한 活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實施될 家庭의 福音教育計劃을 더한다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滿喫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眞實로 人情이 메마른 世波라느니 매정한 세상 人心이니 하는 말로 表現되는 現世情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人情을 나눌 수 있음은 얼마나 기쁜 일이며 흐뭇한 일입니까. 우리가 福音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며 福音을 듣는 마음은 恒常 平和롭고 幸福感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

랑의 福音을 이야기하고 天國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종일 흠어져 있던 家族이 다함께 모인 저녁에 잠시나마 福音을 이야기하며 얼굴마다 미소를 띄울수 있는 時間이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幸福할 것인가를 想想해 보십시오. 神權을 所有하신 아버지가 家長으로서 司會를 보고 어린 아들이 기도하며 누나가 반주하고 동생이 지휘하며 온 가족이 입을 모아 합창도 하여 어머니로 부터 성경 말씀도 듣고 敎會를 代表해서 메시지를 갖고 온 家庭福音敎育 敎師와 한자리에서 福音을 이야기할 수 있는 時間이 있다면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끼며 喜悅을 느낄 것인가 想想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서 고독하게 지내는 聖徒를 家庭福音敎師가 訪問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病牀에 있는 兄弟姊妹를 家庭福音敎育 敎師들이 찾아가서 慰勞해 준다면 그 얼마나 躍動하는 生氣와 勇氣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想想해 보십시오. 참으로 家庭福音敎育活動은 한때 福音 안에서 삶을 營爲하던 빛 잃은 영이나 아직 福音을 알지 못하는 영육을 밝은 빛으로 引導할뿐만 아니라 現在 福音 안에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聖徒들에게는 끝까지 敎會 안에서 견딜수 있는 耐內性과 活力을 供給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各 家庭마다 平和와 사랑을 가져다 심어주고 기쁨을 북돋아주며 家庭과 敎會와의 유대를 더욱 強化시켜 줄 家庭福音敎育活動은 어떻게 遂行될까요?

家庭福音敎育은 大神權 所有者 1인과 小神權 所有者 1인이 同伴者가 되는 家庭福音敎育 敎師가 會員家庭을 訪問하므로써 遂行하는 것이지만 各 敎師들은 事前에 支部長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神權의 權能으로

行하는 것이므로 特別한 按手任命 節次가 必要치는 않으나 支部長은 家庭福音敎育 敎師를 부르기 전에 個別的으로 接見하여 資格 有無나 合當性을 判斷하고 福音敎育 敎師의 責任과 使命을 充分히 理解시킨다음 짝지어진 同伴者를 同時에 接見하여 兩者의 協力을 再強調하여 訪問해야 할 家庭을 割當해 주고 家族事項을 簡單히 紹介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하여 부름 받은 敎師들은 支部에서 열리는 月例모임에서 支部長의 指示와 地方部長의 메시지를 받고 여러가지 問題를 討議하며 每月 訪問한 家庭에 대한 報告를 하게 됩니다. 支部에서는 支部長을 도와서 支部長補助가 活動하며 支部書記가 모임을 記錄하고 訪問할 支部會員을 調査하며 遂行된 家庭福音敎育 結果를 指定된 樣式에 따라 地方部에 報告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地方部長은 補助를 通해 各 支部에서의 活動事項을 管理하여 地方部書記의 報告를 받으며 宣敎部長의 指示와 計劃을 받아 各 支部에 下達합니다. 家庭福音敎育活動의 行政的인 系統은 一般活動과 같습니다. 宣敎地域에서는 總監督者가 宣敎部長으로서 敎會本部의 指示를 받아 計劃하고 活動하게 됩니다. 그러면 家庭福音敎育 敎師들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부름받은 敎師들은 自己가 맡은 會員家庭을 한달에 한번씩 訪問하여 福音을 가르치며 說明하고 地方部長의 메시지를 傳하여 은밀한 기도를 가르치는 한편 敎會의 定期集會 參席與否나 會員으로서의 責任遂行與否를 觀察할뿐 아니라 父母의 宗教生活, 宗教的인 家庭敎育, 家庭生活의 改善및 家庭에서의 任務 忠實을 鼓舞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好意로 本來의 訪問 目的을 忘却하여 家事

를 돌봐 준다든지 個人 問題를 깊이 다루어 秘密에 屬하는 것을 侵害한다든지 험담이나 批判을 하는 것은 避해야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音教育 教師는 教會를 代表하고 神權會를 代表하며 支部長을 代理해서 活動하는 것이니만큼 스스로 모든 일에 模範을 보이며 누구에게나 信賴받을 수 있는 높은 人格의 所有者가 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眞實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各 教師는 自身을 準備시켜야 할 것이며 우리 이곳에 모인 兄弟들은 모두가 神權所有者로서의 天賦的인 使命感을 갖고 이제부터 始作될 이 家庭福音教育活動에 크게 이바

지 할 마음의 姿勢를 굳게 지녀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神權會의 代辯者로서 마땅히 성령의 引導를 받을 수 있는 神權所有者가 될 수 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므로써 글자 그대로 手酷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서 편히 쉴 수 있는 報償을 얻을 忠實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神權行使로 家庭福音教育活動이 날로 增大되고 이 家庭福音教育活動을 通해서 이 땅이 福되며 이 나라 이 民族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날이 發展하고 興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機械的으로 외어둔 성경구절을 이용 하느니 보다 生活가운……■  
 ■……데서 습득되고 소화된 것을 나누는 복음교사가 되어야겠다……■

##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하여

지방부 가정복음 담당 평의원

남 영 진

오늘 이 신권회 대회에 참석하신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신권회 대회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제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를 이 자리에 서게하신 배 일문 선교부장님이하 지방부 여러 지도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해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정 복음 교육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의문을 품으실지 모르나 이

것은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지부 교육과 비슷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하면 문자가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복음을 교육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데이비드 오·멕케이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년들이 자라나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소녀들이 자라나서 여자다운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To make men out of boys, and women out of girls, there

is no place like home)①고 말씀 하였고, 또한 가정은

1. 신체를 보호해주는 테두리(physical environment)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은 신체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쌀쌀한 냉대와 같은 것로부터 감싸 주는 안식처라 하였습니다.

2. 또한 가정은 교육을 받기 위한 좋은 기회를 주는 곳(opportunities for education)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문 교육도 가정 교육의 받침이 없이는 한 인간의 성공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인격적인 영향을 받는(personal influence) 중요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 형성은 가정적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란 베이비드 오·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귀중한 가정에 복음을 교육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음 교육이란?

1. 두 사람의 신권을 가진 복음 교사가 어느 가정이나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것.

2. 대신권을 가진 복음 교사가 영적으로 더 확고한 체계를 쌓고 혼탁한 세계에서 더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3. 비 활동적 회원이나 소신권 정규 연령이 초과한 젊은 이들을 활동적으로 만드는 노력.

4. 소신권을 소유한 성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교회의 전모임에 참석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일.

5. 새로 개종한 사람이나 다른 지부에서 이사는 사람이나 모든 비 활동적인 교회 회원들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친목을 도

모하는 일.

6. 복음의 신성함이 중요시 되어서 실용화 되었고, 교육되어진 진실한 말일 성도가 가정에 그 중요시 되어진 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모든 그런 가정의 부모들과 가정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②을 행하는 것을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복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집을 방문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의 하나인데, 복음 교사가 집을 방문할 때 마음 가정과 몸가정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의 한분이신 앤 엘튼 테너형제는 마씀하시기를 “가정 복음 교육은 형제애를 느끼게 하여야 하며 결코 나쁜 짐을 비평하는 태도나 단점을 들추어 내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된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언제나 모범적이어야 한다③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각 가정에 평화와 안경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 복음 교사들은 말일 성도가 가정에 복음과 평화를 운반하여 보급하는 수레의 역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 허무, 괴로움, 외로움을 청소하여 말씀이 씻어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거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실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 하는 데 관하여 베이비드 오·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④.

1.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허영심이 온몸을 지배한 인간이 장님에게 공손이 절하는 태도를 보여 주위 사람에게 자기의 겸손함을 인정받아 환심을 사려는 낡은 인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정 하나님이 말



씀하신 데로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미한 눈으로 이름어름 보아 넘기는 성도가 아니라 정밀하고 명확한 정신적인 태도에서 심취하려는 정력이 불타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에서 자신과 긍지를 가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는 지부장을 대변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선권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돌보아야 할 가정에 관하여 정신적, 육체적 모든 문제들을 넓게 알고 있어야 한다.

2. 가정 복음 교사는 가르침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요셉 스미스와 그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복음은 회복된 것이며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선권으로 인도되며 교회의 원리뿐 기쁨 마음으로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면 행복과 영생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직업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신앙이 배어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자리)의 현실 유지를 위해 기계적으로 외어둔 성경 구절을 이용—이것은 교회의 신과니 구파니하는 냄새가 난다고 할까—하느니 보다 생활 가운데 습득되고 소화된 것을 부족하나마 풍부하게 나누는 복음 교사, 이런 사람이 진정 말일 성도가 가정 복음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의 말씀을 마치기 위해 다음 성경 구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조만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 15~17)

위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주① : The Improvement Era 1965 January.

주② : Priesthood Home Teaching Hand Book 1967.

주③④ : 선교부 번역 가정 복음 교육 1967.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도 교회에 나갈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 나의 가정과 나의 복음

성북지부회원

김 동 두

尊敬하는 여러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와같은 썩스러운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  
 하는 저는 무척 행복스럽습니다. 그 위에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  
 하여 眞實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나  
 의 침례받기 이전의 生活과 그 이후의 生  
 活 및 神權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  
 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불교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 났습니다. 특  
 히 독실한 불교도이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때 부터 기회 있을때 마다 절에 가서  
 중생과 자비를 터득했고 석가모니의 얘기  
 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던 일이 한두번  
 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우거진  
 숲속에 자리한 백용사를 찾던 것은 나의  
 꿈이고 요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현  
 실의 불안을 제거하고 來世를 위하여 修  
 身하던 전당이고 동시에 마음의 안식처였  
 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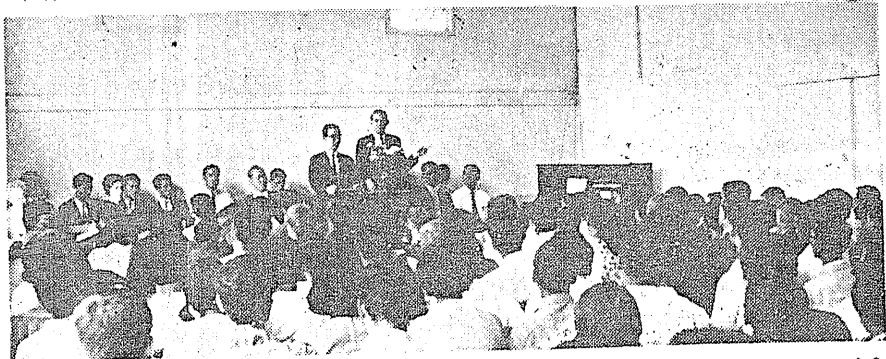
부모님의 기도 하는 모습속에서 썩스러  
 움을 느꼈고 또한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에 근엄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  
 은 마치 西洋의 淸教徒의인 생활 태도였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저는 그러한 생  
 활에 많은 영향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성장하면서 사리를 판단하  
 는 나이에 이르러 人生과 宗教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 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형  
 태로 있었으며 죽고 난 뒤에는 어떠한 형  
 태로 처리 될 것인가. 과연 불교에서 말하  
 는 極樂과 地獄, 基督教에서 말하는 天堂  
 과 地獄이 存在하는 것인가에 대한 懷疑  
 가 깊어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알  
 기 위하여 教會에도 출석하여 이름 있다  
 는 목사의 설교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행동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 마음의 空虛를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宗教는 그것이 어떤 교파이  
 던—佛敎이던 이슬람敎이던 或은 기독교이  
 던—한결같이 來世를 추구하는 사람이 현  
 세의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에서 가장 귀  
 하고 참되고 착한 생활을 하므로써 永生  
 할 수 있다는데 歸—한다고 느꼈던 것입니  
 다. 그러나 제가 그 생활에서 체험하고 느  
 꼈던 것은 종교를 신봉한다는 것이 결국  
 현실도피의 방법이며, 합리적 방법에 의  
 한 생활의 방편이고, 선을 가장한 추악한  
 인간의 투쟁이며, 간악한 者들의 입에 발  
 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信仰 生活을 말로만 참된  
 것이요 의로운 것이라 하고 이면을 볼 때  
 살기 위하여 한겨울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들, 마치 曲藝師가 觀客  
 을 희롱하고 있는 것에 비유 할수 있으니

어찌 그것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佛敎나 基督敎가 부패하였다는 소리를 많이 들 습니다. 그곳이 하나의 生活의 수단으로 서 등장하므로 사람의 맑은 눈을 가리게 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참된 것을 가장하고 의로움을 가장한 무리들이 교인이요, 主日 하루만을 위한 存在들에 지나지 않음을 느꼈을 때 저는 보다 깊은 마음의 傷處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종교에 대하여 관

그러다가 오늘 여러 형제님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먼 원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결혼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중매로 기독교 신자의 현재의 아내와 조건부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엄격한 기독교 가정인 처가집의 요청이어서 결혼초에는 당장에 교인이 될 것 같았으나 그것은 쉽 리 지켜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敎會에 출석을 강요당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나가 기도 했으나 역시 구심점을 찾을 수는 없



심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별 흥미도 느끼지 못했고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독실한 佛敎徒인 양친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리라고 믿었기 때 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만과 나태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그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가산은 점차 기울어 지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신을 저주하고 또한 부정하면서 살아 갔습니다. 생활은 무질서하고 항상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生活은 몇해 계속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마음의 고통은 더욱 커갔고, 그것을 메우는 方法은 오로지 친구와 술 이외는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만과 나태한 생활의 분위기만을 더욱 조장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1965年은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회에 나가던 아내가 이른 봄부터 물몬敎會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 침례를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나더러 물몬경 공부를 하라고 당부했으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 생활의 참 뜻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참된 것을 행사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애들과 교회를 찾고 조석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때 큰 아이

가 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도 교회에 나갈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때 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절로 다니던 때를 회상케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온 가족이 기도하므로서 혼란하고 거치른 현실에서 어린 아이로 하여금 옹바르게 살아 가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신앙심을 키워 주어야 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갈 태도를 갖추고 우선 내가 좋아하던 담배를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읍니다. 기껏 一週日 뒤면 또 계속 피우게 되곤 하였읍니다.

드디어 1966年2月12日을 기해 담배를 피우지 않았읍니다. 그해 망년회 식사에서 몇가치 피웠드니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읍니다. 저는 애써 끊은 자신의 공과 애들 보기에 또 의지 약한 아버지로 보이기 싫어 그대로 딱 끊었읍니다만 술 끊기가 힘들었읍니다.

1966년 가을 부터 선교사와 공부를 하면서도 술만은 쉽사리 끊기가 힘들었읍니다. 내 生活週邊의 여러 이유로 어려웠읍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도 주저되고 공부 그 자체도 別 興味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主日에는 가끔 고사리같은 애들 손에 잡히어 교회에도 출석 했었읍니다만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크게 필요하다고 느꼈읍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나 “지혜의 말씀”을 이유로 침례를 받지 못한다니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가 괴로웠읍니다. 저 스스로 選擇의 自由를 찾지 못했읍니다. 어느 때는 한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읍니다. 참 마음으로 나에게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잠 자

는 애들을 볼 때 저는 모든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7月 1日 지난 날의 모든 생활과 결별을 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읍니다. 신앙의 세계에 입문한지 겨우 2개월에 가까워 집니다. 사람에 비유 하면 어머니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자라 나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산간벽지에서 살던 사람이 대도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지금의 저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하겠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현세의 예언자 속에서 움직이시며 우리 教會는 이 살아 계시는 예언자의 계시에 의하여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주일에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가족임을 자랑하며 지난 날 저와 같은 사람을 대할때 서슴치 않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 교회의 남자 회원이면 소유할 수 있는 神權을 우리 가정에서도 소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 스스로 하나님의 高貴한 權能을 행사할 수 있는 神權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명”과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원이 될 것이니 가정에서는 따뜻하고 냉철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거룩한 神權의 소유를 위하여 더욱 애를 쓸 것입니다.

누가 복음 6:46—49절 까지의 구절을 인용하면

“너희는 나를 불러 主여 主여 하면서 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 하느냐 내게 나와 내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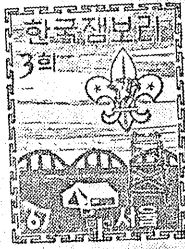
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으며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겠거니와 들고 행치 아니 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실권을 기초삼아 나의 人生을, 나의 信仰을 세우려 합니다. 어떤 人間社會의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계명”과 “지혜의 말씀”에 의

하여 참된 삶을 가지려 합니다.

입술로만 主여 主여 하고 主日 하루만을 위한 교인 보다 행함이 있는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가져다 줄수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이어 받을 참된 회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 까지 이끌어 주신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부장님의 격려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 부족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는 집회의 장소보다는 정신적인……■

■……자세가 문제 됩니다.

## 우리들의 보람

—제 3회 한국 잼보리에 참석하고—

부산 동구지부 회원 이 광 흥

지난 8월 10일 부터 15일까지 서울의 육군사관학교 기지인 태릉에서 보이 스카우트 한국 연맹 창립 45주년 기념겸 제3회 한국 잼보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큰 행사에 저희 부산 동구지부 소년단 9명이 장비의 부족함과 많은 경비와 경험 부족의 역경을 무릅쓰고 참가할 수 있었던 영광을 가진데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지방부 역원들과 김 용일 지부장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 지방부 산하의 여러 지부와 지역 가운데 유독 부산 동구 지부의 소년단만 참석한데 대하여 한편으로는 어떤 긍지랄까 자부심을 가졌으나, 다른 편으론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섭섭함은 잼보리 첫날부터 지금

까지 계속 저희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거의 완전히 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보이

스카우트의 국제적인 행사인 잼보리에 참가하여 덕성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발달과 유용한 기술을 체득하고 보다 더 봉사하는 의지를 굳건히 하여 실제 활동을 함으로써, 남이 필요로 하는 성도로써,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기틀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섭섭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잼보리 기간을 통하여 가장 저희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은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비가 아니 내린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장비가 갖추어지고 단원들

의 경험이 풍부했다면 하등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었던 저희들에게는 야영지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확실히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대(隊) 모양으로 대형 천막을 가져다 댈감을 비롯한 다른 비품을 그곳에 보관할 수도 없었으며 취사 당번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짓는 모습이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 할만한 것은 그런 불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밥을 지었지만 한번도 삼흥밥 아니 이흥밥도 짓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단원들의 밥 짓는 실력을 인정하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번 잼보리 기간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고 영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크나큰 간증을 가질수 있었으며 어찌면 한국 선교사(宣敎史)중에 한 페이지를 남길 수도 있는 날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지난 13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모든 단원이 모여 내일 안식일의 집회에 대한 의논을 하였습니다. 신권회, 주일학교, 성찬식의 세모임을 갖기로 하고 찬송은 몇장, 기도는 누구, 공과는 누구가 무엇을, 이분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는 누구, 성찬의 축복, 준비, 전달은 누구라고 모든 순서와 임무를 지명하고 성찬식에 필요한 성찬집, 성찬 빵보자기 등을 청소년 소녀 대회를 마친 다음날 저희들에게 진심을 응송하게 대접하여 준 서울 동부 지부에 한번 더 신세를 지기로 하고 토요일 오후의 운동 모임에 참석할 겸 단원 7명이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 날 차 중환 지방부장님과 한 인상 장로님이 저희들의 집회를 위하여 참석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필듯

이 기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 다른 날보다 더 일찍 기상하여 아침 식사도 일찍 끝내고 신권회를 준비하는데, 지방 연맹으로부터 집합하라는 뜻하지 않은 행사에 동원되어 신권회를 갖지 못하였음은 정말 피스롭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차 중환 지방부장님을 비롯하여, 제1보좌이신 한 인상 장로, 지 영달 제2보좌, 홍 무광 지방부 상항회 청남 제1보좌, 라빈슨 선교사와 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야영지를 향하여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솔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개회 찬송으로 주일 학교를 시작할 때 모든 단원들의 얼굴에는 지금까지의 고생스러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높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과 함께 비록 하늘이 보이고 풀잎 위에 가마니와 담요를 깔 이런 야영지에서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성찬을 취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는지 모두들 사랑의 충만한 표정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스카운과 관련시키면서 단원들에게 크게 감명 받을 이야기를 하여 주셨는데 특히 한 인상 장로님은 “서울 동부 지부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보거나 또 부산 동구 지부와 같이 창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보거나 아니면 주위가 소란하고 가마니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거나 간에 그 예배보는 장소가 문제 아니라 그 집회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즉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모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가 문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

리들은 바로 우리 대(隊) 정문에 “물론 개척단”이라고 아귀를 달아 놓는 것과 같이 옛날 신앙의 선조들처럼 개척자의 정신을 본받아 봉사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인내하며 용기있게 생활해야겠다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은 지난 청소년 소녀 대회 때 제능의 밤에서 발표한 “월남가는 꿀벌 장군”을 가지고 11일(금)의 단원 웨스틴빌에서 부산 지방 연맹을 대표해서 미흡한 연기였지만



육사 화랑대의 특설 무대에서 6천여 스카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던 이야기며, 개영식 때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광경을 이야기도 했으며, 모든 행사를 마치고 야영지로 돌아 올 때 언제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 왔다는 이야기등을 하며 그동안 고생스러웠던 것을 서로 웃음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감사를 해야 될 것은 언제나 비가 오락 가락 했는데 저희들이 집회

를 보는 동안은 햇빛이 쨍쨍내려 쪼였다가 그 날 오후 부터는 또다시 비가 즐기치게 내렸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집회를 보게끔 축복을 내려 주셨다고 생각되며 또 지방부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아쉬웠던 석유등과 세면대야를 보조하여 주셔서 저녁이면 그 불빛에 모여서 편지도 쓰고 갖고 간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은혜와 수도꼭지에 세수와 간단한 빨래를 그냥 하던 것을 세면대야에 푸근한 마음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캠프리에 참가하는 동

안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동부에서 서부로 약속된 땅을 찾아서 나갈 때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역경, 그 수난 다시 말해서 선조들이 그들이 가진 참다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는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당한 것은 그의 만분의 일도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침체해진 우리 교회의 소년단 활동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고 다음에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모두 참가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67년 8월19, 26일 상호 부조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 25:40) .....

## 義 禮 禮 節 禮 節 禮 節

한국 지방부 상호부조회 고문

팔 마 자 매

오늘 지방 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전 한국에 와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극히 제한된 몇분의 자매님밖엔 알지 못했던것에 비해 2년간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주었던 일들은 대단히 많았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엔 새로운 회계 년도의 시무대회를 동부지방에서 가졌었습니다. 차차 날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자매들이야말로 깊은 영적인 자세와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운영이 계속되면서, 상호부조회 역시 계속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모든 지방장들과 면밀한 협조아래 발전되어가길 바라고 그럼으로 해서 차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사업이 이땅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그리 평탄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주 동경에 갔을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일과 그외에 느꼈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동 선교부장인신 토마스 형제와 그의 부인이 비행장에 나와서 저와 드와잇을 맞아주었을 때 우리는 그의 친절에 감사했으며 목요일에는 일본에 와 있는 하

와이 성도들을 만나 보도록 애기가 진전되었습니다. 그 후 한 시간쯤 차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을때 제가 알지 못하는 말로 인사를 받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안이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말일 성도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와 있는 하와이 성도들은 일본 성도와는 다른 언어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두 나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통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도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며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복음이니 모든 사람이 다같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한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 선교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저는 “일본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적어도 말일 성도들만은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해왔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 자매로서 한국 성도들과 친교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일

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 받았음을 알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비록 언어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과 어울렸어도 저는 그 곳에서 외롭지 아니하였고 두렵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겪은 경험담 한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가 곤란해서 남에게 양녀로 주었으면 하는 아이여서 저는 세상밖은 어린 아이를 보려고 어떤 날 그 아이 집엘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유는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교회에 “여자 아이가 있는데 양녀로 키우지 않겠느냐”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후 즉시 답장을 보내왔던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맨 처음 보낸 편지가 솔트레이크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의 역원들에 의해서 각 가정에 그런 내용이 전달되었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귀환 선교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150마일이나 되는 곳을 모터 싸이클로 가서 딸을 양녀로 두기 원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은 그날밤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날밤으로 제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며 그 후 가정의 딸 하나가 제게 편지하기를 “꼭 이 어린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와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해 왔었습니다. 양녀 수속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그 수속이 완료되는 동안에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두기로 하고 고아원의 사람과 저는 그 어린 아이를 접견하기 위해 가서 어린 아이의 조부모에게서 어린 아이의 신상문제

에 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름 한자 뿐이란 얘기로부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잘길로 가버렸고, 엄마는 건강이 나빠서 어린 아이를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저히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세상은 이렇게 넓지만 이 어린 아이가 몸둘 곳은 없으며 커야 할 가정도 없음을 깊이 통절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찾아야 될 것을 응당 찾아야 했던 이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에게 인도되어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가 속할 가정을 갖게 되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에서 무엇이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일로 해서 말일성도의 능력을 생각해 내었으니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을 구현해 낼수 있는 집단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읽어서 이 세상을 의롭게 살고간 일단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한 기록을 인용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을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25:31-40)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 성도들이 꼭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처해 있을 때나—학교, 시장, 직장, 가정—자비와 친절로 마음이 가득차야 하겠습니다.

「값진 진주」에 있는 모세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의로움과 자비를 이 세상에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며 이러한 일들을 이룰 사람들이 바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회원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빛을 여러분의 친구와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낱알이 돌보아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함소서 그러나 .....■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

## 순 중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

박 우 천 자 매

여러姉妹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南部 相互扶助會大會에서 여러분께 순중이란 題目으로 말할 수 있음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여러 姉妹님께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 姉妹님! 이번 모임의 主題는 순중입니다. 순중함으로 봉사합니다. 순중의 결과는 祝福입니다. 순중안에는 미움도 슬픔도 그리고 원수도 없습니다. 순중은 오직 화평과 幸福을 차지할 수 있는 빠른 길이며 순중의 열매는 풍성한 과일입니다. 世上에서 國法을 순중한다면 좋은 國民이 될수 있고, 家庭에서 父母任께 순중하면 世上에서 福을 받아 잘

살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중하면 집안이 화평하며 좋은 아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한걸음 나가 생각할 것은 병의인 순중입니다. 世上에 온 目的을 알게 된 우리는 주안에서 순중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弟子들의 발을 씻어 주어가며 남을 섬기는 순중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상호부조회가 다른 조직보다 더욱 더 남을 돕는 조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 마다 천국에 다 들어 갈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

라]〈마태복음 7:21〉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갓세마네 등산에서 못박히실 때 너무나 받기 어려우신 肉身의 試練 때문에 그것을 벗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만한 일이라면 이 쓴잔을 내게서 떠나게 합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옛날의 선지자 아부라함은 少年時節에 祝福받기를 願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가 난 고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 滿足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악한 世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주의 뜻대로 갓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만 사람들은 모두 불복하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의 家族은 구원을 받은 事實을 여러 姉妹님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로는 시리아 군대의 대장 나이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허지만 그는 무서운 나병의 초기로 몹시 苦痛을 받고있을 때 그 아내의 수종들던 이스라엘 소년가가 엘리야가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자 나이많은 엘리야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자를 보내여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나리라”고 하였을 때 나이만 장군은 실망하고 노여워 소리쳤습니다. “다메섹왕 아비나와 바

트반은 모든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하며 화가나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만의 불안과 초조는 며날 새가 없었습니다, 그가 슬픔이 잠겨 있을때 그의 종들이 다시 간청하여 “꼭 요단강 물에 씻으면 나오실 것입니다”고 말함으로써 나이만은 비로소 엘리사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그의 살갓이 어린 아이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姉妹님! 순종은 眞理의 應答의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복종은 바늘과 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과 음극이 합해서 電氣가 들어오는것 같이 계명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빛이 된 직분을 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순종을 못한다면 주 앞에 합당한 者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던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한 豫言者 요세 스미스는 순종 했기 때문에 末日에 敎會를 회복하셨습니다. 姉妹님들! 순종은 우리를 永遠한 樂園으로 이끌어 갑니다. 萬一 순종하지 않는다면 썩어가는 肉身의 노예의 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요나의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큰 城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나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않고 다시스로 逃亡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떠나자 여호와께서는 폭풍을 바다위에 나리시매 배가 기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各各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제물을 바다위에 던졌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自己의 罪를 생각하고 自己가 여호와께 잘못된 것을 니우셨습니다. 무리가 이상히 여기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제

비를 뽑아 누구로 因하여 이런 화를 당하나 보자고 논의한 끝에 제비를 뽑으니 마침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무엇을 하며, 어디가 故郷이며, 어느 民族이냐고 물었습니다. 요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陸地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원하는 者인데 내가 그의 말씀을 피한고로 이러하니 나를 바다에 던져 달라고 함으로 요나를 바다 위에 던지매 바다가 잔잔해 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 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고 요나는三日 三夜를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勿論 참회의 기도였죠.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 命하시어 요나를 陸地에 띠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후 여호와의 명하심을 순종함으로 많은 祝福을 받았습니다.

여러 姉妹任!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입니다. 萬一 우리가 주님의 주신 계명을 어긴다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다면 모든 것은 끝나고 맙니다. 불순종者의 末路는 비참합니다. 많은 聖經 구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姉妹任! 지금 우리가 요나와 같이 니느웨城이 아닌 탄 곳으로 잘못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주의 무서운 진노가 있기 전에 육과 영의 발전을 이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배웁시다. 남을 섬기고, 불상한 사람을 訪問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순종하여 시들지 않는 사랑속에 永遠히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단결합시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가족 서로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때 그것은 확실히.....■
- .....낙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가정은 절망과.....■
- .....파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되고 맙니다.....■

## 순종 함으로 받는 축복

지방부 상호부조회 일 모임교사

최 정 자 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 질머지셨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에 쫓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 해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전능하심으로 해서 이 지상의 일들을 모르실리 없고 처신 하실 길이 얼마든지 있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질머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사회 통치자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서 받은 축복과 은혜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댓가로 그는 인류의 죄를 씻었고 예수님이 몸소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의심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승천하심으로 살아계시



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우리의 구세주 로 은혜를 내리시고 아버지앞으로 갈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하심도 깊은 마음으로 이해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은 물론이요 현 사회 통치자에게도 순종하여야 합니다. 불 순종시엔 무법과 혼란속에서 살게되겠지만 순종함으로서 전서 있는 맑은 세상이 될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지도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참 복음을 받게 될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얻는 우리의 축복은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족 서로 서로가 화음을 잘 이루어 나가면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가정은 지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불순종하면 이 가정은 절망과 파산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심청이는 그 가정의 빈곤과 홀아버지의 불구에도 낙심치 않고 인내의 순종, 자식된 도리의 순종을 함으로서 축복으로 자기는 황후가되고 아버지도 구했다는 얘기는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집에 모자가 살았드랍니다. 아들은 난폭해서 어머니에게 반항만 하다가 집을 뛰쳐나가 어느 부두에서 일을 하였고 있습니다. 너무 고된 일에 지쳐 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참 자고 있을 때 배에서 일 하든 어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바다 속에 던져버렸드랍니다. 당황한 그는 물속에서 허부적 거리며 사람 살려 달라고 애걸을 해도 검은 화물선은 말이없고 사나운

파도만 일드랍니다. 공포에 싸인채 기진 맥진한 이 소년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화물선을 다시 보았을 때 그 검은 화물선에서 흰 손이 내려 오드랍니다. 너무 기뻐서 그 손을 덥석 쥐고보니 감축이 어머니 손이어서 깜짝 놀라 깨여 보니 꿈이였드랍니다. 이 소년은 그 길로 차기 집으로 가 보았더니 대문도 방문도 열려있고 촛불이 켜진채 방에 어머니는 자고 있드랍니다. 놀란 그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 눈 보라치는 추운 날씨에 왜 불을 얻어놓고 촛불을 켜채 주무십니까고 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오네 아들이네가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문에서 지채 할가봐 그랬다. 네가 나간 그날부터 문도 열어놓고 촛불도 밝혀 놓고 기다렸다고 하면서 아들이 돌아옴을 감사해서 기도드리드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고 그후로 그 소년은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야 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자기 생활에 순종함으로써 얻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에게 재판장이 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어머니를 한번만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면회하게 될 사형수는 어머니를 보드니 달려들어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드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입에서 피를 쏟고 넘어지고 동시에 어머니의 허바닥 동강이가 떨어지드랍니다. 어이가 없는 재판장이 사연을 물으니 사형수 말이 “어려서 부터 나의 잘하고 잘 못함은 우리 어머니가 가려 주었었으면 오늘 네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하고 울드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받고 부모님께 순

종합으로 평화와 사랑의 축복이 있을 줄 믿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할 때 가정의 번영과 발전과 예정의 축복이 오고 자식에게 순종할 때 그 자식의 성장과 교육이 훌륭하여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기쁨이 올 것이요, 어느 재산에 비할수 없는 축복이 있을 것을 꼭 믿는 마음에 의심이 없습니다.

이러 저런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 한국 여성이야 말로 순종의 축복 받을 대상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 이래 우리는 외국 여성들 보다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이미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니 우리의 비록 가난하고 조그마한 나일지라도 전통깊고 예의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드리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인정한 나라, 두뇌가 좋은 백성운 가진 나라, 밝은 불과 파란 하늘을 가진 나라, 조상 대대의 축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축복을 이미 받고 있음을 생각하고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조상들이 받지 못한 훌륭한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축복있길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발전과 자매님들에게 영적 축복이 임할 것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필자 : 지방부 상호부조회 일모임 교사)

## 광 고

# 로 드 쏘

한국 지방부 상호향상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로드 쏘를 개최 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일시 : 서울지역 : 1967년 11월 16일(목요일) 6시 30분  
남부지역 : 1967년 11월 25일(토요일)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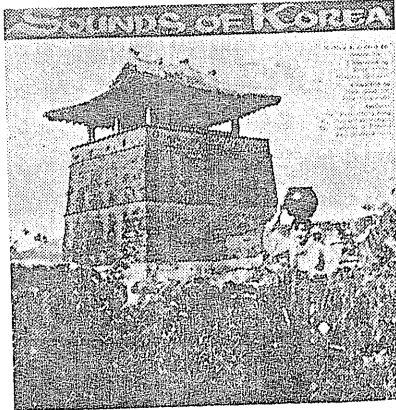
장 소 : 서울지역 : 선교본부  
남부지역 : 대구(장소 미정)

제 목 및 임의로 하되 경쾌하고 건전하여 저속하지 않으며 품위가 있어  
내 용 : 회원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방부 상호향상회—

# 한국의 소리 전축판

## 드디어 판매 개시 !!



스펜서 제이 팔머 한국 선교 부장님이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소리” 전축판의 판매 책임을 맡고 있는 삼척지부에서는 특히 海外에 계신 聖徒 여러분과 歸還 宣教師 여러분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략한 역사 소개에서 비롯하여, 듣고 그것이 바로 한국임을 느끼게 하는 “한국의 소리”로 가득찬 이 LP 판에는 밤의 야경군의 방망이 소리, 서울역의 소음, 뚝북이 노래에서 빨래 다듬이 소리, 절의 목탁 열불 소리등 수십개의 산 소리가 수록되어 있다.

몇년전부터 여러 사람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 “한국의 소리”판이 여러 형제 자매의 향수를 달래는 벗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이 판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삼척지부 건축기금으로 쓰인다고하니 사는 사람의 보람을 더 해주지 않을까?

국내에서 희망하시는 분은 선교본부 판매부로 연락하시도록.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척동 5번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삼척지부

연락책임자

씨들러 長老

가격 900 원

※ 海外에서 주문하는 경우 소포료 별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 9 대 대관장

이시며, 예언자이신 데이비드 오·백케이님의 제 94

회 탄신—9 월 8 일—을 맞아 성도의 벗에서는 대

관장님의 연설초를 엮은 알·돈 오스카슨 형제의 글

과 에스 딜워즈 영 형제의 시를 씌어 그 분의 탄신

을 축하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 예언자의 음성

알 · 돈 오스칼슨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둥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면만, (엘마서 29:1-2)

선지자 엘마의 염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엘마와 같이 인생의 짧음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무런 긴 생애를 보낸다 하여도 남을 변변히 돕지도 못하는 약함을 결실하게 느끼셨다. 비록 '천둥과 같은 음성'이나 말씀을 담은 황금 같은 귀중한 책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것을 남에게 허가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듯 하다. 예순 한 살적 총관리 위원회 일원으로 일하셨던 때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을 느꼈던 수 백만의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간증을 되풀이 하셨다.

교회 총관리 역원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 에 처음 선지 어언 50년이 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당시에 저를 교회의 한 지도자로 지지하여 주시면 회원을 바라보고 느꼈던 두려움과 결허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 세기가 더 지났지만 조금도 그런 감정은 가벼워지지 않았 습니다. 언제나 처럼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의 동정과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에 두었던 말씀의 윤곽만을 전하 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간의 내부에 있던 영적인 것의 발전을 촉구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상의 존재는 자신의 노력과 마음과 영혼을 육체적인 본능의 위안과 회 열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영적인 자세의 획득을 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의 자신 보다 더 높은 무엇을 위하여 살지 않

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 14:6)라고 하신 구세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목적을 찾은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음성을 따르면 그는 곧 행복을 얻거나 영생에 이르는 길은 달리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위대한 회생이나 직책의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미소를 아끼지 않으며 친절을 베푸는 등 조그만 일에 충실한 것이 곧 인생의 승리이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며 자신의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가정에서, 여러 친숙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보내는 시간과 매일로 형성됩니다.

인생의 정도는 접촉할 때에 일어나오는 태도 여하로 결정됩니다. 우리들은 그 매일의 접촉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중 속된 것이나 영적인 것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삶은 매일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목적인 영성이란 자신을 이기며 신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보다 더 큰 힘을 바라게 합니다. 인간 능력의 발전이나 영속에 자라고 있는 진리를 느끼는 마음이 인생의 가장 숭고한 경험의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1958년 4월 4일 일반 총회에서의 말씀에서 발췌)

영생! 자신 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 인간의 애써 찾는 위엄 보다 더 높은 어떤 것— 맥케이 대관장님이 현 세대를 향하여 반복하여 주시는 가장 비중 큰 말씀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의 신성입니다. 1955년 10월 11일 부리감 영 대학생들에게 대관장님은 자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성공적인 결혼과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 몇 가지에 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소년이 있을 때에 10대의 다정한 친구와 산보를 즐기던 어떤 여명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간 길」을 따라 사우스 포크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들 장미가 만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장미를 따지 않았습디다. 왜냐하면 여행자들의 손때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곧 도착한 산꼭대기에도 장미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자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던 햇볕과 아침 이슬만을 받았던 청신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더럽혀지지 않은 장미를 따서 같이 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결혼의 관계에서 행복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일 성도들이 배우며 또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순결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에서 대관장님은 특유의 유모어와 시를 인용하여 자체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요리 솜씨가 탄탁치 않은 아내에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젊은 남편에 대한 말씀이다.

“참다 못한 아내가 결국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제 요리 솜씨가 나쁘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당신이 꺼려하는 것 만큼 저도 꺼려해요. 그렇지만 당신두 잘 해보려구 붙잡고 씨름하는 저를 보실 것 아녜요? 전 결혼한 다음부터 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 때문에 결혼이 부담이 될 정도에

요. 자제력을 배우세요. 말씀 좀 참았다 하는 버릇을 기르세요.” 원 칼톤은 다음과 같이 썼읍다.

연을 날리는 소년은  
흰 날개의 새를 풀어당길 수 있으나  
말을 날리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못한 사상은 때로  
죽어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죽어 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관장님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개발해야 할 단순한 조건의——적용하기는 수월하고 결과는 지대한——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제가 다음에 듣고 싶은 요소는 바로 예의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그러한 바깥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느끼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남녀는 결혼을 연애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영원한 연애의 처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말은 연애 시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배려를 가정에서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은 평범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등이 가장 적절하며 그것으로 거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평범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솔트 레이크 테버나클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행사에서 대관장님은 구세주의 사명

에 관한 간단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셨다.

말씀의 종결 부분에 이르러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원고에서 눈을 돌리서 청중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1959년 10월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쓰셨습니다. (디후 4:1-2)

“무슨 말씀”으로 나오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후 1:10)

“……여러 세대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여 왔읍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폭도나 되는 것처럼 독소적인 존재로 거부하는가 하면 예수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을 ‘서구 세계의 정신력을 저해한 기독교적 도덕’체계의 책임자’로 보는 사람도 많읍니다. 그러나 분명한 통찰력을 동원하고 경험을 통하여 위의 의견과는 반대로 ‘근면, 정직 진리, 순결, 친절등 법을 준수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체계의 창시자이며,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며 인간을 하나의 커다란 형제애로 결속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역사의 인물로는 그와 비교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지만 그의 신성은 부인하는 사람도있음

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위대한 교사  
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의 가르침은 현  
대라는 사회적인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  
고 합니다. (여기서 대관장님은 자기의 강  
한 간증으로 다음의 말씀을 이었다.)

“얼마나 그 수가 적은가, 얼마나 적은가  
그 분을 아버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  
셨으며,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지니셨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불의한 것  
을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나신 분이 아닌  
가! (추가 부분)

끝으로 대관장님은 촛불, 등유로 부터  
원자력과 우주의 신비를 평생 두고 체  
험으로 발견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  
결을 일러 주셨다. 부리감 영 대학에서 행  
하신 말씀에서: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오랜 동안의 경  
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이 생활의 즐거움  
희열, 행복은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애 있어서의 성심이나 심적인  
만족을 갈구한다면 매일의 생활에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거니와 조금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의 결과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  
하여 드린 것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렵 관시인은 나무 가지에 달  
려 울창한 숲속으로 연결된 끈 하나를 발  
견하였습니다. 그는 이 끈을 따라 들어가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를 알아보기로 결심

했습니다. 덩굴 속으로, 나무 가지 위로  
따라가던 관시인은 마침내 아직도 손에는  
노끈 문치를 들고 있는 사냥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끈은 무엇에 쓰려고 하느  
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울창한 숲  
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종종 듣  
지 않습니까? 저도 길을 잃었을 경우 이  
줄을 따라 제가 온 길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정한 거죠.”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  
다.

우리들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인정이  
라는 울창한 숲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  
다. 개중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도 있으  
며, 어떤 사람은 험명하게 안내인을 갖고 있  
어(단어를 바꾸어서 정박지라고 부르겠습  
니다.) 길을 잃거나 혼미한 인간 관계에서  
방황할 때 자기의 원점을 찾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박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입니  
다. 행복, 안전, 개성은 그 정박소의 소  
유로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봉사,  
충실한 봉사를 해야할 인간속으로 마약 진  
수할 우리들이 정박소를 정하도록 도와 주  
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합니다.







데이비트 오·맥케이 대관장의 초상화 위긴스 장노작

Thoughts on September 8, 1967,

for David O. McKay

By S. Dilworth Young

*Sir:*

*Let us leave off, for a brief moment,  
The prophetic calling, the  
Awesome responsibility  
Of presidency,*

*The terrifying knowledge that  
One false step or act may set back  
The Lord's work for generations.*

*For thus the leader weighs his  
Decisions,*

*His responsibilities.*

*Let us look upon a man  
Laid bare from his official acts,  
From his interpreting the  
Lord's will.*

*What do we see?  
The will to keep the word  
Of God;*

*Determination to obey  
The higher law,  
Yet give each  
The right to go  
His way without imposing  
Righteousness by force,  
But yielding not one inch  
To evil men.*

*"These things stand true,"*

*He seems to say;*

*"Honor!"*

*"Integrity!"*

*"Virtue!"*

*"Respect for womankind!"*

*All this, and more, firm knit into his  
Character,*

*Into himself.*

*Thus he willed to be,*

*And thus he is.*

##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 대한

1697년 6월 8일의 단상

에스 딜워스 영

대관장회의 경건한 책임,  
에언자로서의 부름을  
잠간만 생각지 말기로 합시다  
헛디딘 한발자욱이나  
그릇된 한 행동이  
주님사업의 진전을  
여러세대 뒤지게 한다는  
소름끼치는 지식을  
잠간만 잊어버리기로 합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의 결정, 자기의 책임을  
깊어 집니다.

공적인 행사로부터 벗어난  
주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에서  
벗어난  
한 인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 더높은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결의;  
그러면서도 각자에게는

강제로 의를 떠맡기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권리를  
주셨으나  
악인들에게는  
일보도 양보하지 않게 하신  
이분은  
“영예!”  
“고결!”  
“유덕!”  
“부인에 대한 존경!”  
“이 모든 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과  
또 더 많은 것이  
그분의 성격에,  
그분 자신속에,  
확고하게 얽혀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결의하고  
이렇게 하여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 엠마 레이 릭스 멕케이의 추억



## 편집자주

데이비드 오·멕케이 대관장님의 제 94회 생신을 축하하면서 그 분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내조 해온 엠마 레이릭스 멕케이 자매님의 추억을 4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 제 1 부

### 어린시절, 결혼, 자녀

행복했던 엄마 엠마 루이스 릭스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에 긴장했다.

아이들이 일어난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엄마방에 다달으자

아홉살짜리 넷드가 소리쳤다.

“새 애기 어니 있어? 나 볼래!”

“엄마 애기하구 놀아두 왜? 누구 낳았어?” 다섯 살짜리 레스터도 한마디 했다.

“자 너희들이 들어와서 보렴!” 아이들은 뿔뿔이 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와 엄마 침대에 옆에 섰고 아이들 뒤로 아빠가 가까이 다가섰다. 엠마는 한편 팔꿈치로 바닥을 집고 작은보물을 소중하게 들어올려 세 사람앞에 보였다. 그녀는 아직도 작고 빨갛다. 세 사람은 이모 저모로 애기의 모습을 살피고는 이내 흠족해 했다. 이어 행복의 함성이 터졌고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된 누이 동생을 반갑게 맞는 것이었다.

“애기가 꼭 빛나는 햇빛같구나” 행복에 젖은 아씨의 음성이었다. “애기 이름은 햇빛을 뜻하는 레이다—엠마 레이 리스.”

1877년 6월 23일 엠마 루이스는 일찍 잠을 잤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팔에 안긴 작은 기적을 응시하면서 감당 못할 행복에 젖어 있었다. 작은 가시내 애기가 그네의 가정에서 새로 도착한 것이다. 그네는 허가된 충분한 행복에 말없이 감사하면서 한편으론 이 어린 것의 삶을 기도로 간구했다. 리스 가정은 아들 둘을 잃은 바 있다. 넷드보다 두살 아래였던 윌터는 생후 육개월만에 갔고, 레스터와 쌍둥이로 태어난 헤롤드는 겨우 한달 반을 살고 갔다. 비록 당시의 유아 사망율이 높았고 또 이같은 비참을 체험한 엄마가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현상이 사랑스런 부모의 슬픔을 덜어줄 순 없었다.

애기의 밝은 미소와 구김없는 모습, 결국 레이는 해를 거듭하면서 온가족의 마음에 커다란 사랑과 밝은 소망을 안겨 주었고 이년 후에 태어난 로오렌스로 하여 가족의 기쁨은 극을 점하게 되었다.

엠마 레이가 태어난 두달뒤에 브리감 영 대관장이 빌세하셨고 그 슬픔은 대관장의 가족에 있어서나 전 교회에 있어서나 한가지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사적인 생활의 이야기가 자주

가정에서 전해졌으며 레이는 어렸을 적에 이 얘기를 듣고 새겨 두었다. 이런 얘기도 있다. 하루는 엄마가 머리가 거칠거칠 스텝도록 자라 잠깐 이살소에 들렀는데 거기서 브리감 영 대관장을 만났다는 거다. “엠마 루이스 리스, 어떻게 오셨오?” 대관장은 말했다.

“머리를 자르러 왔읍니다, 대관장님”

“그 예쁜 머리를? 그 머리는 마치 영광스런 왕관 같지 않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발사의 손이 닿지 못하게 말이오”

엄마는 그말에 순종하여 돌쳐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결국은 머리를 잘랐단다.

레이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그녀의 아버지 오바디아 에이치 리스는 솔트레이크시티 서부 2街 북로 56에 집을 지었다. 레이는 어린 시절을 때로는 오빠들과 함께 공놀이, 구슬놀이를 보냈고 거의 모든 시간을 바로 앞집에 살았던 사촌 넬과 벨과 더불어 지냈다. 대개 이들은 공기, 줄넘기, 사방치기 등으로 소일했다. 눈이 깊히 쌓이는 겨울철이면 돌아가며 썰매를 타고, 그네의 집은 참으로 우아하고 사랑이 넘치고 잘 정리된 가정이었다. 레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전 가족은 즐겨 함께 놀이를 하고 그때에 유명했던 노래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함께 모여 부르곤 했다. 엄마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려 주었고 뿐만아니라 엄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했다. 짙은 머리색을 한 미남의 큰 오빠 넷드는 뛰어난 운동가로 축구와 스케이트의 명수요 그 위에 엄마의 큰 음성과 음악적 재능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 그는 다분히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저녁이면 오래도록 피아노를 치고 기억나는 오페라를 불러대고 그리고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가끔 레스터가 그의 부드러운 테너로 합세하기도 했고 레이의 콘트라 알토가 가미되면 아름다운 이중창이 되던가 삼중창이 되어 울려 퍼졌다. 레스터는 뛰어난 인재였다. 그는 학교지에 손을 댄고 학교 토론회의 회원이었으며 무

엇이라도 금방 의우고 그리고 섹스피어를 자유 자재로 인용했다. 그는 그 후로 법학공부로 방향을 바꾸어 얼마 동안 개업하기도 했다.

레이는 늘 배우겠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으며 독서를 至上의 樂으로 삼았다. 그녀가 다녔던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독서기초과정을 배웠는데 당시 西路 1가와 西新전路 사이에 있던 옛날 제 7와드의 건물

이 학교 교사로 사용되었었으며 레이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마침내 레이는 아빠의 서재에 꽂힌 서적 가운데서 스스로 큰 비밀을 발견해 내고야 말았다. 아빠가 동부에서 가져온 많은 책 중에서 특히 레이를 사로잡은 것은 세계의 위대한 작가가 집필한 고전이였다. 그녀는 읽고 읽고 또 읽는 중에 참으로 승화된 영광을 맛보았다. 실은 그녀는 너무 읽었고 엄마는 혹 레이가 독서로 시력을 버리지 않을까를 염려했던 것이다.

독서를 쉬는 때면 그녀는 피아노를 쳤다. 스케일 연습, 배우고 있는 곡의 연습, 그리고 때로는 기억하는 대로 슬픈 곡을 치기도 했지만 통상 즐거

운 곡을 연주했다. 그녀가 치는 피아노는 쉘트 레이크 제곡에서는 제일가는 것이었다. 정묘한 다리의 마호가니제(製)의 이 그랜드 피아노는 대평원을 여행해온 것이었다. 이 피아노는 존 알 로빈스씨가 쉘트 레이크로 가져온 세 피아노 중의 하나였고 딸 엠마 루이스 릭스에게 선사한 거였다. 그리하여 이 피아노는 릭스 가족과 그의 친지와 친척간의 커다란 자랑이오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는 기구였다. 레이의 엄마는 다른 학생들에게 성악과 피아노를 가르치는 시간을 틈타서 딸을 가르쳤다. 이리하여 레이는 전생애를 두고 자기 스스로만이 타고난 음악의 재질을 즐긴 것이 아니라 피아노 연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레이는 엄마와 또 할머니와 로빈스에게서 가정을 이루는 가사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배웠다. 그녀는 매일 매일의 가사인 조리와 설거지를 도왔고 후 석유 등의 심지가 낮아 불이 어두우면 탄 심지 끝을 잘라내기도 했으며 잘못하여 갖을 닭지않아 방이 어둡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레이의 책임이었다. 대개 레이는 등을 거의 다 관리해야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레이는 할머니 댁의 청소를 끝낸 뒤 할머니께 여쭙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잘 됐지요?”

“응 그래 다 잘 됐다”

할머니의 대답이었다.

“어디 더 치울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곧 하겠어요” 레이는 무엇이랄도 다 하겠다는 태도로 말했다.

“너 그림틀 위의 먼지는 털어내지 않았더구나”

레이는 곧 할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다. 할머니는 매사에 철두 철미하셨던 거다. 이토록 어린 시절에 알뜰하게 일을 배웠던지라 레이는 가사를 빈틈없이 처리할 줄 알게 되었다.

일은 늘 있어서 껌매야 할 양말, 바느질 감, 세탁, 대립질 등이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일은 다루기 힘든 것이었다. 첫째 세탁을 하자면 빨래를 밤세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젖물을 풀어 스토브 불에 삶은 뒤 빨래판에 놓고 손으로 비벼야 했으며 대립질도 하루종일 걸려야 했고, 대리미도 스토브 위에 달구어 쓰는 넘적하고 큰 것이었다. 뜨거운 많은 여름날을 레이는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스토브 앞에서 무거운 대리미로 있는 힘을 다하여 대립질을 하느라고 땀을 흘려야 했다. 그렇게 하고도 레이가 기진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다.

고귀한 개척자의 유산 그것은 바로 레이의 것이었고 레이는 조부모님들의 동부에서 개종했던 이야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뭉었다.

당시 쉘트 레이크의 물몬 동료와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한 존 로빈스의 가족에게는 두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평원을 가로질러 여행해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샘 브라운 회사의 배를 타고 케이프 혼을 돌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水路를 택하기로 決定했다. 그리하여 일행은 항해가 6개월이나 걸린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않은채 기꺼운 마음으로 부록클린호에 올랐다. 어린 아들 둘이 바다에 장사되었다. 태평양 상에서 새로 태어난 딸은 태평양의 이름을 본따 안나 페시픽 로빈스로 명명되었다. 바로 이 딸이 후에 레이의 아주머니가 되었고 벨과 벨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레이는 어린 시절부터 복음의 사랑으로 젖어 성장했다. 가족 전원은 혹서로 사사로운 대화를 나눈다던지 가족기도에서든지, 주일학교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교육되었다. 그네의 간증은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 성장했다. 열 일곱살이 되어 죠지 에이취 브림할 박사의 지도 과정을 수료한 뒤 그네는 와드의 초등반을 가르쳤다. 그후 2년만에 그네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네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그는 국민학교 임시교사를 맡아했다. 그네가 학교를 떠나야 했을때 반 아이들은 막 울었다. 그 옛날 그 반 생도였던 어떤 부인이 최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가 참으로 훌륭한 교사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않고 강조했다.

레이가 열 여덟살이된 어느 날 엄마

가 그를 거실 창앞으로 불렀다. 엄마 옆에 가서 엄마가 보고 계시던 창앞에 벌어진 풍경을 함께 보고 레이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잘 생긴 청년 둘이 앞 옆에서 그들의 모친을 부축하며 걷고있고 그 뒤에는 자매 둘이 따라 걷고 있었다.

“레이야, 저 청년들은 어머니에게 찍이나 정이 깊구나 저런 청년을 남편으로 맞는 이자는 분명 행운의 인물일 거다”

이들 청년이 테세렛 대학에 다니는 2년동안 이들은 레이 엄마의 집에 살았고 레이의 가장 친한 벗이 되었다. 그로부터 6년이 될 때까지 레이는 이들 친한 벗이 그네의 형제요 자매가 될 것을 확실히 하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레이비드 오 맥케이가 오랜 인생의 동반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모든 벗중에서 가장 친한 벗일줄을 바로 깨닫지 못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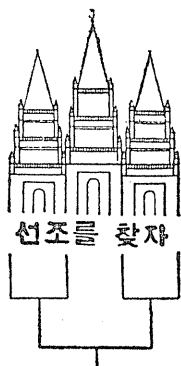
레이도 테세렛 대학에 다녔다. 하루는 그네가 복도를 걸어 내려오다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네는 발을 멈춘채 열린 문틈새로 흘러 나오는 젊은 테비드 오 맥케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이 젊은 청년이 장차 무엇인가를 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네는 생각했다.

(다음 호에 계속)



系譜欄



## 가족 기록서

□□ 기재요령 □□

朴 在 巖

地方部 系譜擔當 評議員

신전의식 즉 선조를 위한 대리 침례와 신전 결혼, 가족임봉, 대리 결혼 등을 신전에서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본 기록서가 이 가족 기록서인데 이 기록서가 한국선교부 지방부 계보 도서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은 앞날의 신전 의식을 위하여 이 가족 기록서를 반드시 기입하여 각지부 계보 위원장을 통하여 선교부 계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입하는 법을 정하여 여러분의 참고가 되도록 지방부 계보 평의원 박 재암 형제의 가족 기록서를 제시하고 기입하는 요령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명란(남편, 부인, 자녀 등)에는 반드시 영어나 한문이나 한글이나를 막론하고 성씨를 앞에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 넣는다. 성명 기입에 있어서 약자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어의 성씨 기입에 있어서는 성씨를 전부 대문자로 쓰고 이름은 각각 대문자를 앞에 쓰고 다음을 각각 인쇄철자로 써야한다.

② 모든 일자 기입은 필수만 있으면 서기로 고쳐쓰되 월일을 양력으로 고쳐쓰기 힘들면 년월일자 뒤에 (음)이나 (양)으로 표시하면 된다.

③ 주소(장소) 기입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한문으로 정확한 장소와 번지를 다 써 넣는 것이 좋으나 대개 무슨 區나 郡 혹은 洞까지 써 넣으면 족하다.

④ 자녀 성명의 성별란에는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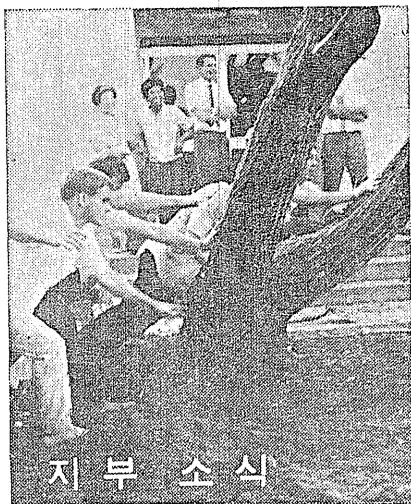
짓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남편 성을 밝히고 신전 의식 자료란에 있는 침례 일자와 앤다우멘트 일자란에 유산이 면 유산이라 기입하고 탄생해서 죽었으면 그 두란에 그저 “아기” “아기” 라고 기입한다.

⑤ 가로의 근거란에는 이 가족 기록서를 기입하는데 필요했던 모든 자료의 근거를 열거한다. 또한 호적 등(초)본, 인구조사서, 동적부, 주민거주증, 침례 확인서, 족보, 파보, 가승보, 세보, 가족 대표의 상식 등등의 모든 것이 확실하고 틀림이 없다고 느껴질만한 신빙성이 있을 때에 기입된다.

⑥ 그외의 결혼과 이유란에 있어서는 영원히 대대의 후세에 남겨도 기록으로서 완전하고 받아들일 만한 결혼 관계 즉 일부다처 시대의 기록, 초혼에 남편이나 아내가 신전에서 가족인봉을 하고 난뒤에 사망을 하였을 경우, 합법적인 이혼과 신전이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소실을 두고 거기에서 난 자녀가 회원이 된 관계의 결혼 등등 명예로운 관계의 기록을 주로 기입한다. 그러나 가족 기록상의 누가 자살, 살인, 파문, 정신병으로 인한 사망, 혼혈관계, 특별인봉, 그리고 대관장회에서 결정한 문제가 세상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인간 관계의 문제들은 특별 비밀 기록으로서 달리 보관 취급된다.

⑦ 이외에 또 필요한 설명이 요할 때에는 필요한 설명란에 기입하고 그란이 부족하면 뒤에 기입해도 무방하다.

이상의 조항에 대하여 간단한 기입법을 설명하였읍니다만 이 기록서를 기록해주고 제출해주는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 제출자의 주소 성명만 잘 기입되어 있으면 이 기록상의 불비한 점이 있을 시에는 그 제출자를 찾아 지부 계보 위원장이 문의 할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설명으로 의문이 계시는 분은 지부계보 위원장이나 선교부 지방부 계보위원회 회장단이나 평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해결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계보 사업의 결과로 선조를 찾고 그들을 신전 의식을 통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 가족 기록서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성취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못토”는 신전 사업없이 영원한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없음과 같이 계보 사업을 통한 가족 기록서의 제출없이 신전 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 지부 소식

사진 : 거목작업중인 서부지부

### 서부지부

4월에 건물수리를 완료한 바 있는 서부지부에서 헝크리 사도님을 모시고 헌당식을 갖기위한 준비로 지부의 모든 회원이 축제기분에 쌓여있다.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는 헌당식을 위해 잔디밭을 만들고 나무심기에도 경성을 기우려 왔던 서부지부에서는 찬양대를 만들어 매일 처럼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헌당준비에 애쓰는 이들을 돕기위해 지난 9월 2일 선교본부소속의 선교사들은 불품없이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있던 거목 제거 작업을 도왔다.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서부지부소속의 김 영자자매와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한바 있었던 후테드릭 디·리형제의 결혼식이 지부 예배당에서 있었다. 선교부장님의 주례로 거행되

었던 이날의 식전에는 미군 형제들이 대거 참석해서 더욱 이채로웠다.

(조 규영記)

관려 선교사로서 두고 아찔한 일 쓸쓸함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안부를 일일이 전하지 못함을 섭섭해했다.

### 이 정현 장로 휴양

그간 광주지역의 선교사로서 봉사하던 이 정현 장로는 강화도에서 얼마간 휴양을 하게되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국화리 팔도정(윤기택씨택)

### 118주기 추도식 거행

호직 박사님의 제8주기를 맞는 기념

### 삼청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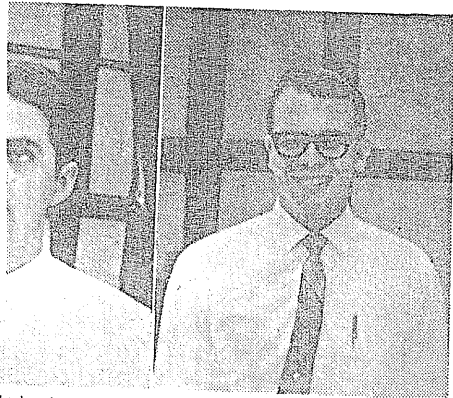


지부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교회를 알리자는 선교사 정신에 입각한 삼청지부 상호향상회役員들은 지부장

단과 선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지난 9월 7, 8 양일에 걸쳐 영화의 밤을 갖었다. 서교브자니이 이기찬 기베르기

## 대전지역

전연 낮 선 곳에서 기도에만 의존해 왔던 대전지역의 선교사들은, 10월 28일에 있을 칙례식을 앞두고 개척자의 보람으로 더욱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말 첫 전도를 시작했던 대전지역은 그간 페리튼 장노가 관리 선교사로 애써왔다.



<벤스장노>

<베넬장노>

<프리스장노>

## 청운지부

10월 14일로 확정된 쏘포트·볼시합을 앞두고 2년연승을 했던 청운지부는 지난 9월초부터 매일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열의에 헌 장비를 갈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부장과 새로운 쏘포트 볼 장비를 구입한 기쁨으로 이들은 3연승을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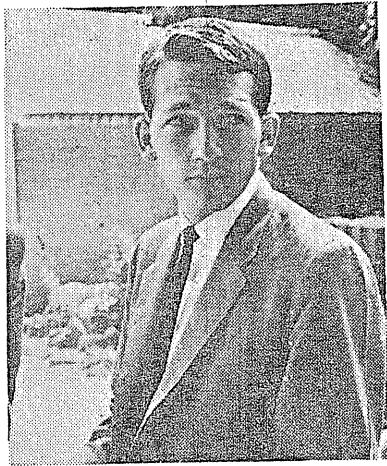
(홍순모記)

## 주님의 종 한국에 오다

지난 8월 16일 3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 이들은 유타주 프로보시에서 온 스티븐 이 벤스장노, 유타주 레이튼시에서 온 엘리 케이·베넬장노, 캘리포니아주 라 메사 시에서 온 존 에이 프리스장노들이다. 한국에서 봉사하게 된것을 감사 한다면서 한국말을 배우느라 열심히 다.

## 넬슨 장로 귀국

그간 동부지부에서 관리선 교사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위해 애써왔던 레이 엘·넬슨 장노가 지난 9월 18일



서북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지부의 관리 선교사로서 수고 하였던 그는 쓸쓸함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안부를 일일이 전하지 못함을 섭섭해 했다.

### 이 정현 장로 휴양

그간 광주지역의 선교사로서 봉사 하던 이 정현 장로는 강화도에서 얼마간 휴양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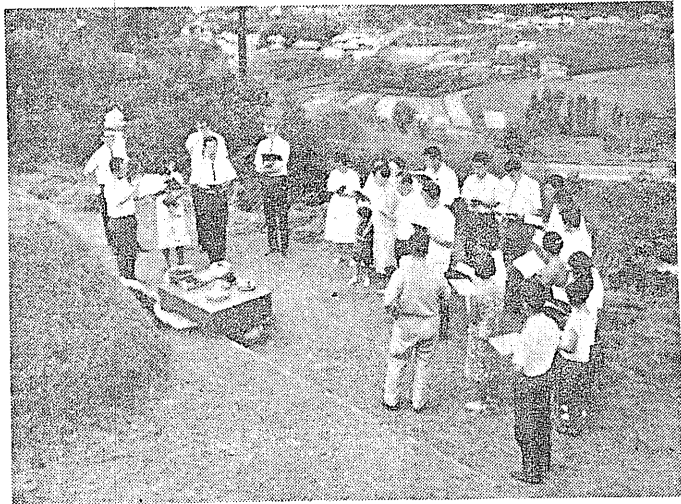
주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국화리 팔모정(윤기태씨댁)

### 고 김 호직 박사 제 8 주기 추도식 거행

한국 성도들의 지주 이셨던 고 김 호직 박사님의 제 8 주기를 맞는 기념식이 지난 8월 30일 뜻 있는 성도들의 참석리에 망우리 묘소에서 간략히 거행 되었다.

동부지부에서 함께 예배보던 형제들과 그분이 계셨던 동부지부 이름으로 국화를 바쳤던 이날의 추도식에 앞서 모두 잔치를 다듬었다.



7.5, 1956

My dear Bro. Palmer,

Just a line say hello!

I am in Pusan now and stayed at Bro. Choi gai shin's home. Bro. Palmer, I so much admire you for what you have done here. We had nice MIA meeting at Bro. Choi's home. We are very happy to have such a nice house with your wonderful efforts. We will have soon 2 missionaries here, we have found the living quarters too.

Bro. Kim and all others send say gratefulness, and will inform you more details in the future.

Your brother in Christ  
Bro. Jik Kim

#### 편집자 주

이 글에서 김 자메라 함은 김 도필 자매님을 가리킨 것이다. 팔머부장께서 군목으로 한국에 계실 때에 자제를 구해다가 미군 형제와 한국인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최 재신 형제의 집을 지어 주었고, 미군 부대에서 갖던 집회를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1956년 6월 서울지부를 창설한 파우엔 텃튼 장로는 선교부에서 증파된 선교사를 맞아 부산 지부를 창설하기 위하여 먼저 김 호직 장로를 부산에 가시게 하여 선교사 숙소를 마련하게 하였

1956년 7월 5일

## 사랑하는 팔머 형제께

몇자 적어 안부를 전하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최 재신 형제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머형제, 당신이 한국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 재신 형제 집에서 훌륭한 상호향상회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렇게 훌륭한 집을 갖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고 당신의 훌륭한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후에 이곳 부산에 선교사 두 분이 오게 됩니다. 선교사 숙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김 자매와 다른 모든 성도들이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합니다. 아마 당신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전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김 호직 드림

---

다. 김 장로님은 최형제 댁에서 갖은 상향회에 참석하시어 파머 부장의 노고로 그 집이 지어진 일을 알고 감사와 안부를 몇자 적어, 귀국한 파머 형제의 주소를 아는 김 도필 자매님께 이편지를 부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경하셨다. 당시 피난 생활이라 정리되지 않은 살림이 어서 김 도필 자매는 어느 책속에 꽂아 두고 그만 11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수 일 전에 선교 부장님에게 전달 되었다. 편지를 쓰신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받는 분은 한국에 선교사가 파견되기를 갈망하여 대관장회에 편지까지 내어 해롤드 비·리, 요셉필딩 스미스 사도의 내한에 이어 선교사의 파견을 가능케 하여 이제 선교부장이 되셨다. 11년 만에 이 편지를 받아든 선교부장의 감회는 어떠하였을까. 김 박사님의 친필을 대해 보니 감개 무량하다.

#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58장)

작곡자: 미상

작사자: 미상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마다 비썃작곡인 즐거운 나의 집을 연상하리라 생각한다. 가사가 주는 느낌이 비슷하고 곡상도 또한 비슷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나의 집이나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고저 하는 바는 사랑과 평화, 미움과 시기가 없는 아름다운 생활을 구가하게 하는데 있다. 이 찬송이 즐거운 나의 집과 다른 점은 모든 선과 미와 진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송한다는 것이다.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이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향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겠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 제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하였고 (교리와 성약 93편 11절 참조)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으며 (교리와 성약 66편 12절, 84편 102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로—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고 또 주님앞에 거할 수도 없나니 이는 아담의 언어로 말하면 거룩하신 이는 주의 이름인 까닭” (모세서 6장 57절) 이라 하였다. 또 레이멘인은 그들의 불의와 강박한 성격으로 인하여 희고 아름다웠던 그들의 피부가 보기 흉하고 어두운 빛같이 되었으며, (니파이 어이서 5장 21절) 회개한 레이멘인은 죄를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용모도 아름다워졌다.

“저들의 저주가 사하심을 얻어 저들의 피부가 니파이인들과 같이 희게 되었으며 저들의 젊은 남자와 딸들은 심히 아름다웠고 니파이인과 더불어 해아려 지며 니파이인이라 일컬어 지니라”(니파이 삼서 15—16절)

이 찬송을 부를 때 마다 사랑, 아름다움, 화평, 미소, 행복, 축복, 생명 등 선하고 참된 하나님의 것들을 찬양하며 이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자.

작사자와 작곡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악상기호는 “간절히”이다. 이 찬송을 간절히 부르려면 가사에 힘을 주어야 될 것이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부르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속도는 1분에 88이므로 보통 속도를 유지하면 된다. 조금만 늘어지게 불러도 이 찬송의 진미를 상실하게 되니 느린 속도가 되지 않게 불러야겠다. 넷째단 “나의 집, 내 사랑”은 그 앞 부분의 속도보다 조금 느려지는 것이 멋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다음은 제 속도대로 불러야 될 것이다. 마지막 “내 사랑”의 “내 사”에는 느낌표가 있다. 독창할 때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길게 불러도 좋으나 함께 부를 때에는 그 음의 2배의 길이로 부르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 지휘자에게

한번 들으면 처음부르는 사람도 다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쉬우면서도 친근감을 주고 그래서 늘 애창되는 좋은 곡조이다. 찬송가를 보지 않고도 부를 수 있게 가사를 외우게 도와주어야 하겠다. 셋째단 첫소절 “어디나”로 되어 있으나 “어디나”로 고쳐주어야겠다.

알토 파트도 연습시켜서 2부 합창이 되게 부르는 것도 멋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의 집 내 사랑”은 이전보다 변화성있게 여러게 부르던지 크레센도로 시작하여 데미넨도로 끝나던지 크레센도로 시작하여 여러게로 끝나지 말고 세게로 끝나고 “세월도”를 강하게 부르면 괜찮을 것이다.

#### 반주자에게

세고 여러게를 변화성 있게하여 악기 연주로서 이 곡이 지닌 멧시지와 가사가 지닌 멧시지를 듣는 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전주로서는 첫 단의 마지막 마디 “모든 것 아”를 빼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단을 연주하면 훌륭한 전주가 된다.

간주는 넷째 단의 “나의 집” 부터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다.

첫째 단 마지막 마디의 테너 파트를 치려면 손가락이 짧아서 안될 것이다. 바른 손으로 A<sup>b</sup>까지 짚어서 세개의 음을 동시에 내게 하고 왼손으로는 “든 것”의 테너음을 눌러 주면 깨끗한 화음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섬표를 제대로 살려서 그 앞 음을 너무 길지 않게 쳐야 되겠다. 그 앞 음을 길게 빼고 한 박자 쉬고 나면 다음을 시작할 때 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 셋째 마디의 마지막 음, 느린 표가 붙은 “사”의 테너음을 정확하게 짚어 주도록 하자. 테너음이 그 화음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 自由를 찾아서

李 英 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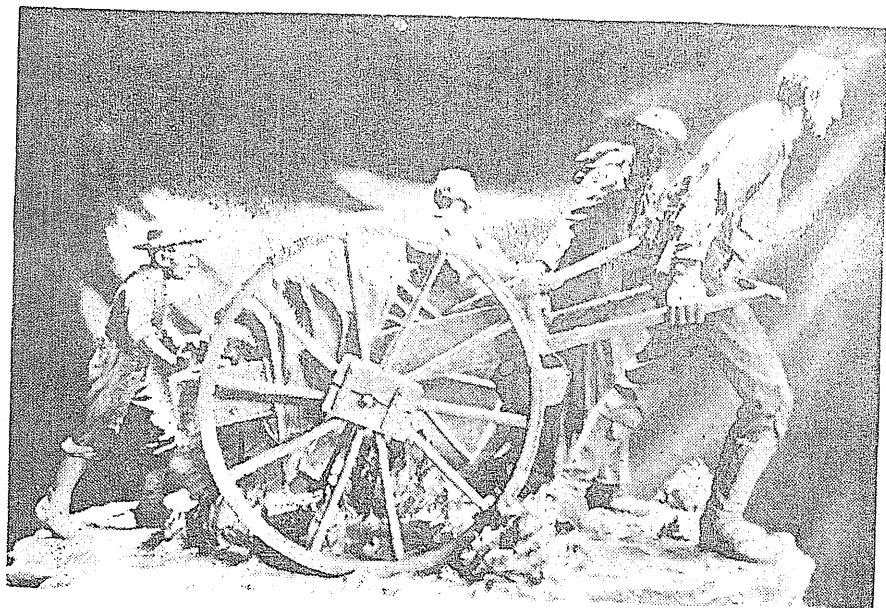
편집자 주 : 필자는 로스안젤스의 한국인 성도 책임자로 있으며 이 글은 1967년 7월 24일 개척자의 날을 마지한 성착식의 말씀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7월 24일은 개척자의 날, 이날의 솔트레이크(Salt Lake)의 거리는 여러가지 기념 행사로 분주합니다.

1847년 브리감·영(Brigham Young)의 인도아래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

한 첫번 개척자들의 수요는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외는 전부 남자로서 전부 14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847년이 다 가기전에 12회에 걸쳐서 2천명이 넘는 몰몬의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에 도착을 했고 1869년 철도가 놓일 때까지 근 8만명이 넘는 몰몬들이 이민을 하여 오늘의 유타의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 개척자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자유와 진리를 위하여 과감히 싸워  
개척의 정신을 빛낸 사람들의 발자취  
를 더듬어 보고 싶습니다.

1636년 하바드 학원이 미국에 최초  
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  
니다. 이때의 사회는 오늘과 같이 복  
잡하지 아니하였고 종교적 분위기에  
싸인 有一色의 조그만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일한 지도자는 목사였  
으며 목사가 곧 사회의 윤리와 질  
서와 정치를 지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바  
드 학원의 교육 과정도 주로 철학, 윤  
리, 교육, 종교, 성서등으로 구성되  
어 있었습니다.

하바드 학원이 하바드 대학으로 된  
이후 초대 총장으로 던스터(Dunster)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사고력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강  
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인격이 고결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대의  
교리와 풍습에 따라 그는 자기의 세  
아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러나 넷째아들을 낳을무렵 성경을 연  
구한 결과 유아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  
였습니다. 그는 담대히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지적하  
고 이를 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넷째 아  
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과감히 유아세  
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대  
의 교리와 풍습과 전통에 어긋난 던  
스터 총장의 언행은 조그만 마을에

큰 여론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대  
학교를 지지하는 유지들과 이사진의  
큰 반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달의 혼동이 있는 후 학교의  
이사진은 던스터 총장의 파면을 언도  
하고 파면 직전 던스터 총장에게 최  
종의 기회를 주어 총장의 그릇된 가  
르침과 행동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  
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성경에는  
유아세례”라는 교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파면의 언도를 달게 받고 최  
초의 하바드대학 총장직을 물러났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자유와 진리를 수호  
한 과감한 투사로서 그의 이름은 미  
국의 종교와 교육사상에 길이 남게되  
었습니다.

올슨 스펜스(Orson Spence)는 十九  
세기 초엽에 가장 이름 높았던 침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스펜스 목사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는 언  
제나 참된 것을 추구했으며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그것을 수호할 줄 아는 과감한 인격  
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물몬경을 읽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개종을 하게되었을 때에 그에  
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그는 가문과 직책과 권리  
와 그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서 교회의 견소한 회원이 될 수 있  
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개척자  
의 뒤를 따라 서부를 향하여 이주하

였던 것입니다. 이 멀고 거치른 여행의 도중 사랑하는 그의 부인은 병이나 늙게 되었습니다. 생각 끝에 그는 장인에게 연락하기를 아내가 병이 위독하니 서부에 정착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테이니 그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에게서 온 회답은

“내 딸이 물몬교를 저버린다면 내가 받아 주겠노라”하는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후 병이 위독해진 그의 부인은 그가 가는 곳에 내가 따르며 그가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며 그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그대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라고 말한 롯기의 기록을 성경에서 되풀이 하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친구도 세상의 명망도 가문도 다 저버린 스펜스에게 하나 남은 부인도 그의 걸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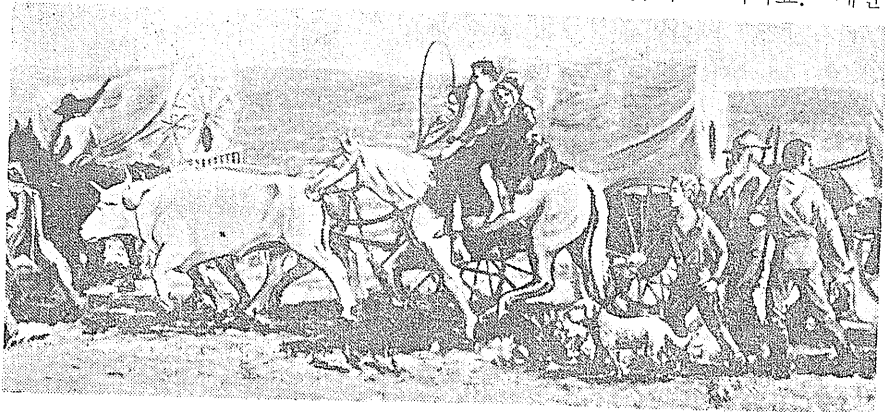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를 위한 불굴는 사랑과 신앙이 아직도 가슴속 깊이 박히어 있었습니다.

샬트레이크에 도착 후 그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고 많은 책을 썼으며 큰 대학을 설립하고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었으며(현유타대학) 그 후 교회의 대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펜스는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바쳤고 바친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개척자의 날을 마지하여 저는 대륙 횡단의 개척자들 가운데에 가장 쓰러진 고비를 겪은 윌리스와 말틴(Willis and Martin)의 구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사상에 세 가지의 큰 애사(哀史)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1846년 네바다주(Nevada)의 시에라(Siera)山間에서 길을 잃은 도나 파티(Donner Party)가 그 하나요, 2년 후 1848년 코로라도(Colorado)주의 산·주안(San Juan) 깊은 산골짜기 속에 파묻힌 존·후리몬트 파티(John Fremont Party)가 그 하나요. 세번



제의 예사는 1856년에 윌리스와 마르틴에 인도되어 대륙을 횡단하는 물몬의 달구지 파티(Mormon handcart Company)입니다.

46년과 48년의 예사는 文人과 史家들의 손을 빌어 아름답게 장식되어 미국 서부 개척의 한토막 역사로서 후세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의 이야기는 물몬의 이름 아래 사람의 편견과 오식 때문에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1856년 五月의 어느날 아이오와(Iowa)시를 끼고 도는 강언덕에 옹기종기 뭉여 앉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창백하고 수척하고 그리고 몹시도 여위 보였습니다. 어디로 보나 장거리에 뭉인 시골 농부였지 1,400마일의 거치른 대륙을 횡단하려는 개척자 같지는 않았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캠프 생활을 해본 경험도, 들에서 자본 일도, 들 음식을 먹어본 일도 없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복음의 희소식을 듣고 개종한 이후 시온성을 향하여 먼 여행과 수난의 길을 택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가슴속에는 신앙과 자유와 개척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둘로 팀을 나누어서 각각 윌리스와 마르틴의 지도 아래 일주간의 기간을 사이에 두고 긴 여정에 올랐

읍니다. 이들은 추운 겨울이 닥치오기 전에 쉼트 레이크시에 도착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기하지 않았던 추위와 눈보라 때문에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브리감 영은 구원대를 모집하여 음식, 모포, 옷과 마차를 구하여 27명의 장정을 보냈읍니다. 구조대원들이 윌리스 파티를 만났을 때에는 그날 밤에 아홉명이 아사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48시간을 굶고 있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마르틴 파티를 만났을 때는 불과 십일만에 56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설사병과 다른 질병으로 고초를 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스 파티의 일부는 十一月 초 순경에 쉼트 레이크에 도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해의 겨울을 山中에서 지내고 그 다음 해에 쉼트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개척자들이 겪어간 모든 고초는 글과 말로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여행도중에 희생된 그 수 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1848년의 후리몬트 파티는 열한사람의 희생자를 내었고 1846년의 도나 파티는 사십명의 희생자를 내었으나 윌리스와 마르틴의 물몬 개척자들은 그 정확한 수효는 알수가 없으나 최저 200여명의 희생자를 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1846년과 1848년의 개척자들과 물몬의 개척자들이 어려움을 겪어간 과정은 서로 대조가 되며 여기

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자의 개척자들은 송장을 뜯어 먹어가며 생명을 지속해 갔지만, 물문의 개척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감사로서 어려움을 극복해 갔습니다. 어느 역사가는 “용기와 인내가 역사를 창조하고 곤궁과 대 환난 속에서 인간의 친절미와 형제 애가 기록할 만한 일이라면 잊어버린 물문의 개척자들의 에피소드는 영원히 미국의 서부 개척사에 빛나는 한토막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서부대륙을 횡단한 것은 벌써 백 이십삼년 전의 먼 옛날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언의 교훈을 뒤에 따라 올 수많은 성도들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남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 었습니다.

## 칸타타 원고 모집

1967년 12월 칸타타 (성극)를 위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작본을 모집합니다.

### 요 령

1. 물문경을 소재로 할것
2. 200자 원고지 50~100매

### 응모자격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 중환 앞

### 마 감

1967년 10월 30일

### 시 상

1. 특작 — 3,000원 (1편)
2. 가작 — 500원 (1편)

〈주일학교계공〉

## 역원을 찾아서 (5)

허채(許採)형제편

편집자 주 : 이달에는 인천지역에 집회소를 제공해 주고 계시며 주일학교 공과 교사로서 봉사하고 계신 허채형제님을 건물 수리가 한참인 총무로의 사무실로 찾아 보았습니다.

기자: 안녕 하십니까? 이젠 거의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찾아보았는데 아직도 무척 바쁘시군요.

허형제: 네, 안녕하십니까? 이젠 거의 끝났습니다. 대 청소를 한 셈이

지요. 유리 몇 장 하구 칠만 조금하면 끝이 납니다. 2층으로 올라 가실까요?

기자: 저것은 전부 읊셋 기계입니까?

허형제: 네 그렇습니다.

기자: 주로 어떤 일을 취급하고 계십니까?

허형제: 원색 인쇄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곳에서 인쇄업을 하신 것



은 오래되셨는지요?

허형제: 약 15년전에 이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얼마후에 시작을 했으니 까 십년이 넘는군요. 참, 성도의 몇 의 표지가 이번엔 흰색이더군요.

기자: 네, 보진제 인쇄소에서 인쇄 하고 있습니다.

허형제: 무척 많이 발전했더군요. 반가운 일입니다.

기자: 벌써 달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허형제: 네, 달력을 한 30 만장 주문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 일을 시작해도 한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의 집에서 하는 흰색 인쇄는 좀 자랑할만 하지요. 교회 것도 부탁을 해주신다면 원가로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하.

기자: 네 감사합니다. 적당한 기회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님께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허형제: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기자: 침례는?

허형제: 5월 6일에 작은 딸 옥선이와 큰아들 선희 모두 셋이 같이 받았습니니다.

기자: 그 전에도 종교를 가지셨었습니까?

허형제: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이 안정되지 않고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하나의 구실 처럼 생각되어졌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고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사업을 여러가지로 하고 계신지요.

허형제: 이것 외에는 인천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지요.

기자: 네, 그곳 이층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가 보았읍니다. 대단히 훌륭한 장소이더군요.

허형제: 별말씀을.

기자: 서울과 인천을 다니시려면 바쁘시겠습니까.

허형제: 오전에는 인천에 있고 오후에는 주로 서울에 있게 됩니다.

기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찾으셨는지요?

허형제: 몇 년째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왔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찾았던 동기는 스펜서 장로를 목욕탕에서 만나면서 시작 됩니다.

기자: 그들과 어떻게 얘기가 시작 되었습니까?

허형제: 미국인 두 사람이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한국말을 잘 하느냐고 했더니 선교사라면서 설명 용지를 주더군요.

기자: 그래서 집회 장소엘 가보셨나요?

허형제: 그렇지요. 주일날에 집회 장소를 찾고보니까 인천중학교 교감 사택의 사랑방에서 집회를 보고 있더군요. 보니까 열 명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도 앓기가 곤란한 정도이더군요.

기자: 그럼 그 다음부터 허 형제님 이층에서 집회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허형제: 그렇습니다.

기자: 지금은 주일 집회에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허형제: 30, 40명 됩니다.

기자: 당시의 10명에 비해 3, 4배가 성장한 셈이군요.

허형제: 네,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만, 발전이 좀 더 없었던 것은 집회 장소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인천의 도시 계획을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이 주안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터를 일찍 구해서, 그 곳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그곳의 주민을 흡수 하던가, 아니면 터라도 일찍 구해 놓았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허형제: 네, 그렇습니다.

기자: 교회에서는 어떤 일에 봉사하고 계신지요?

허형제: 주일학교의 공과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따님께서는?

허형제: 찬송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사모님께서는?

허형제: 네, 인천의 일을 맡느라구 아직 시간을 못내고 있습니다. 허지

만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곧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화평은 종교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기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허형제: 19살때 했습니다.

기자: 당시로서는 별로 빠르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허형제: 입대하기전에 대개들 결혼을 했었지요.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들 일찍들 했었으니까요.

기자: 중매이셨습니까?

허형제: 물론이죠. 양쪽 어른들께서 잘 알고 지내시던 처지였습니다.

기자: 자녀는 모두 몇 분이십니까.

허형제: 아들 둘, 딸 둘입니다.

기자: 군대 생활은 오래 하셨습니까?

허형제: 위생병으로 안성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입대전에 도립 병원에도 있었고 해서 맹장수술은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웃으신다)

기자: 고향은 어디십니까?

허형제: 능수버들로 유명한 천안입니다.

기자: 고향은 언제 떠나셨습니까?

허형제: 16세때였습니다.

기자: 어느 곳이었습니까?

허형제: 안성이었습니다.

기자: 네, 그럼 안성 도립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대하셨군요.

기자: 그 후에는 어느 곳에 계셨습니까?

허형제: 인천이였습니다.

기자: 그때가 몇살이셨습니까?

허형제: 21살 이였습니다.

기자: 어떻게 해서 고향을 떠나셨는지요?

허형제: 세상에 나가 성공 할려면 객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모양 같습니다.

기자: 제일 고생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허형제: 집에서 인천엘 가려고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영등포에 오니까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차를 얻어 타려 했읍니다만 세워주어야지요. 그래서 달리는 추력에 매어달렸지요. 처음 만국공원 근처에서 사방을 보니까 암담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꽤 슬퍼지더군요.

기자: 네, 그 후 어떻게 기초를 잡으셨는지요?

허형제: 모르는 집에 가서 먹여달라고 했지요.

기자: 왜 서울을 택하시지 않고 인천을 택하셨습니까?

허형제: 당시 인천엔 외국 상선등으로 해서 무척 불벗었지요. 그들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인것 같습니다.

기자: 그 집에서는 쉽게 받아 주었습니까?

허형제: 네, 비교적 쉽게 받아주는 했어도 이것 저것으로 시험을 하더군요.

기자: 무엇을 하는 곳이였습니까?

허형제: 점원이 저 까지 아홉명이 있었던 커다란 상점이였습니다.

기자: 일본 사람 경영이였습니까?

허형제: 아니죠, 한국 사람 경영이였습니다.

기자: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요.

허형제: 한번은 제가 잘 다니는 길에 지금 돈 오백원이나 되는 돈이 놓여있지 않겠어요. 그 곳에 떨어졌을리가 만무 하거던요. 그래서 저는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주인을 주었더니 그러냐면서 시침이를 딱 때더군요. 그 후 그와 비슷한 시험을 여러번 당했습니다.

기자: 그 곳엔 얼마나 계셨습니까?

허형제: 일개월 있다가 나간다고 했더니 붙잡더군요. 같이 있자구요. 일개월을 더 그곳에 있다가 나와서 제 두달 봉급을 가지고 카메라를 샀지요. 그것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자: 그 후 재미를 보셨습니까?

허형제: 네, 그 때 3년만에 꽤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요.

기자: 사진관이 잘 되었었군요.

허형제: 저는 미군만을 상대로 찍었었습니다. 물물교환이었죠. 한장씩 어주고 담배 몇갑을 받고 그것을 다시 팔고요.

기자: 당시에 있었던 일로 제일 쉽게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허형제: 김 구 선생이 오셔서 그분의 사진을 찍구 하다가 그분의 비서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그 사람과 무역을 하자고 일을 벌리다가 사진을 당해서 무 일푼이 되었습니다.

기자: 진언 못 받아 내셨습니까?

허형제: 그것을 아시고 김 구 선생이 이 시영 선생에게 소개를 해 주시더군요. 이 시영 선생이 절더러 태극기하고 국기 게양법을 인쇄하라구 하시더군요. 메모 한 장을 들고 영등포 방직회사에 가서 여섯 트럭의 광목을 차용해다가 인쇄를 하었죠. 잘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당시 국무총리로 있던 이 범석씨가 자기 조카와 같이 하도록 얘기를 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다가 6.25를 만났지요.

기자: 춘추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허형제: 마흔 둘입니다. 한 것은 없이 나이만 먹었어요.

기자: 그럼 국기때 부터 인쇄를 하신게 되는군요.

허형제: 6.25 후에도 미군 상대의 D&P 점을 경영했는데 출장 사진사가 16명이나 되었읍니다.

기자: 생활이나 사업에 신조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허형제: 신용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건강해 보지 않고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통의

경우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제가 달라집니다만, 저의 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르다고 느끼시진 않았읍니까?

허형제: 네, 교회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옷이나 머리등에 특별한 장식을 한다던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나 교회 분위기가 틀에 박히지 않은 극히 자연스러움을 갖게 합니다. 외면을 꾸미기 보다는 내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 같아 아주 매력적입니다.

기자: 계획중인 일이 있으시다면?

허형제: 신전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건축기금 같은 것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기자: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허형제: 우리나라의 공예품 같은 것을 미국에 팔고 그 곳의 물품을 이곳에 가져다 팔면 이익금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자: 네,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성도의 벗을 위해 글도 가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형제의 온화 한 성격은 크고 겸손이 없는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저력이 있어 보이는 허형제의 인상은 역시 사업에 종사한 분 같다는 생각을 가지며 인사를 나누었다.

## 용문사 캠프로 다져진 우리들

장노 정원회 회장 김 석 모

교회에서 야외캠프를 가기로는 두 번째인가 보다. 한번은 삼척지부 상향회 주최로 불광동 산야에 갔던 일이고, 또한번이 이번 장로정원회의 캠프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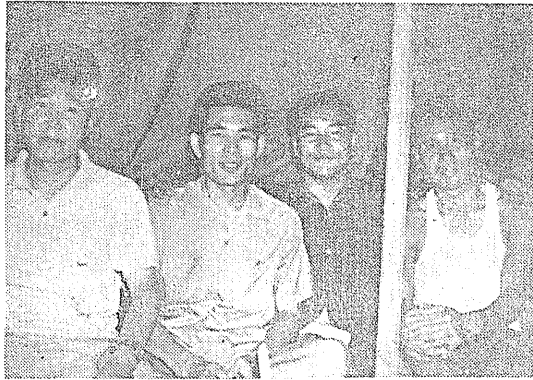
캠프는 매일의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떠나 심신의 피로도 풀고 여름을 잊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8월 14일 아침 청량리역에서 제천행 완행열차에 몸을 담은 것은 오전 10시였다. 대부분의 장로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15일의 공휴일을 이용하다보니 1陣 2陣으로 나누어서 떠나게되었다.

第1陣으로는 정대판형제 구중식형제, 한인상형제, 이태문형제와 필자의 5명이 선발대로서 숙식도구와 식량을 운반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기차로 2시간반 다시 용문역에서 합승으로 30분 거기서 15분정도의 보행은 다소 힘든 일이었다고 여겨지나 신앙에서 순수하게 모인 형제들과함께 번거로운 도

시를 떠나 대자연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원한 일이었다고 이러한 생활은 가끔 우리에게 필요한 소탈하고 자유로운 인간감정 속에 젖게하는 필요한 것들이었다.

오후 1시 30분경 전날 답사한 장소에 텐트를 치고 캠프 준비를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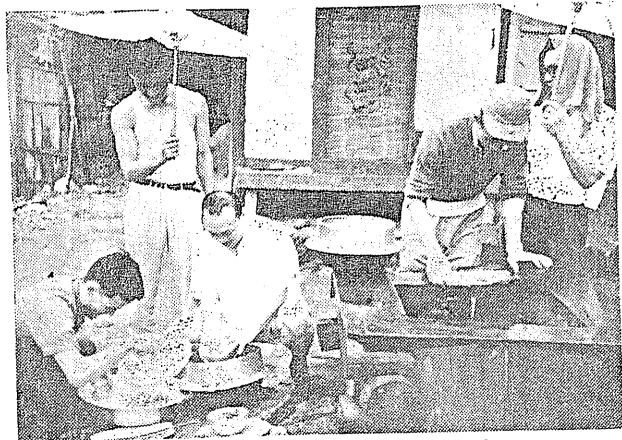
빛속의 촛불 밤담

하고 나서는 이제까지 우리를 유혹하던 빗물에 몸을 담겼으나 흐르는 물에서 일어나는 찬기운은 금방 몸을 서늘케한다.

용문산에는 두가지 유명한 사적이 있다.

하나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용문사로써 10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비록 잔해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웅대 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과 또 하나는 신라의 마의태자가 속세의 권세와 명예를 버리고 금강산으로 入山하다가 산세가 하도 좋아 한 그루 은행나무를 이곳에 심은 것이 오늘날에는 하늘을 뒤덮어 들레는 어른의 열 아름 정도로 커서 웅자한 모습이 과히 불만했었다.

이 나무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한번은 무지한 초부가 이 나무를 베려고 하니 하늘에 뇌성이 일고 번개가 쳐서 베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가끔 나무위에서는 며칠씩



여관으로 철수한후의 빗속의 설것이

윙윙 그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저녁을 마치고 촛불에 둘러 앉으니 들리는 것은 물 소리 뿐이고 지척을 분간 못할 정도로 어둠이 쌓여온다. 트럼프놀이를 하다보니 밤 11시다. 내일의 일을 의논하다 보니 이형제는

대전행 열차에 몸을 실은지가 오랜것 같애 우리도 편히 쉬기로 했다.

새벽녘에 새소리에 깨여 눈을 뜨니 안개가 짙는데 시각은 6시였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허술했던 텐트속에 물이 스며들어 전원 기상하여 정비작업에 쫓겼다.

우리는 오늘 도착할 선교부장님을 포함한 第2陣을 위해 요리에 있어 한국의 대표선수급은 뭇직한 정대판 형제와 한 인상형제를 도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쉬임없이 내리는 비로해서 차가 도착한 것은 10시가 넘어서였다. 이곳의 水流는 급류여서 비가 오면 급격히 늘어나 사람이 건느기가 매우 위

험한 곳이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차가개를 가운데에 간헐수밖에 없는 고생도 해야만 했었다.

第1陣과 합세한 우리는 함께 용문사와 은행나무를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텐트를 철거

하여 여관에 자리 잡았다. 아침도 못먹은 2陣을 위해 점심을 겸한 식사준비에 바빴고 한편 선교부장님은 차수리를 위해 분주히 다니셨다. 모두 시장을 메꾼 후 식후 처리를 이 형제와

차형제에게 전임했더니 놀란 솜씨로 해낸다.

다행이 우리는 그곳 주민과 어떤분의 도움으로 차를 수리하게 되어 하루를 더 머물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오후 3시경에 용문사에서 철수했다. 중도 3시간 반의 긴 자동차 여행에서 우리는 가지고 갔던 재고를 정리하고 2 번이나 다이아가 터졌으나 선교부장이 친히 운전하셨던 차는 오후 7시경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의 장로정원회 캠프는 오직 장로들만의 캠프로서 비록 맑과 비와

물속에서의 생활이 있지만 허물없는 대화의 교환과 연속은 보람차고 알찬 신앙의 연속이라 할수 있겠다. 선교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긴 역사적인 여행이었다고 본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주제만 정해 놓고 토의도 못한 몇가지 숙제들은 다음 기회에 꼭 실현코저 한다.

끝으로 총각 이태문 형제의 꿈어린 가정 설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빌고 다음의 피크닉에는 가족과 함께 가서 우리 장로님들의 요리솜씨를 전시 할수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 제7회 성도의 벗즈

### 【문 제】

1. 한국판 물몬경의 값은?
2. V. Y. U. 란 무엇의 약자이며 무슨 말인가?
3. 1967년 12월호 성도의벗은 통권제 몇호인가?

### 【응모요령】

1. 성도의 벗 몇 회분을 명기 할것
2. 주소, 성명, 소속지부명과 득후감을 짧게 기재 할것(인편은 무효임)
3. 해답은 10월 30일 까지 성도의 벗 도착분에 한함
4. 매월 정답자 5명씩을 추천하여

5회 당첨자에게 6개월의 성도의 벗을 증정함.

## 제5회 정답 및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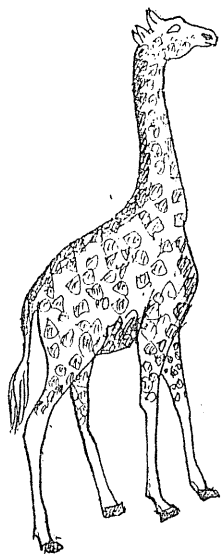
### 【정 답】

다음 경전의 출처는?

1.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  
답 교리와 성약 93장 36절
2. 나는 선한 목자니라  
답 요한복음 10장 11절
3. 사람이 무지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  
답 교리와 성약 131장 6절

### 【정답자】

동부지부 이 호 희 형제(2)  
동부지부 고 천 석 형제(3)  
(이상 2명)



## 이야기로 엮은 구약성서

### 1.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

우리들이 살고있는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 졌나,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참 알고 싶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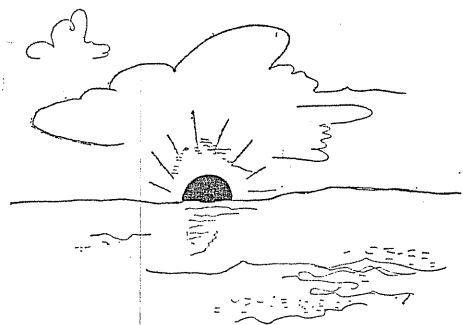
자 그럼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이야기를 잘듣기로 해요.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에 살고 계시기 훨씬 전에 넓고 넓은 이 지구 덩어리가 모두 흐물흐물한 진흙과 같은 커다란 덩어리로 하늘과 땅은 모두 캄캄하기만 하였어요. 물론 풀 한 포기나 나무 한 그루가 있을리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들도 전혀 없었지요. 참 쓸쓸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꾸미어 놓은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어떤날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곳에 『빛이 있으라!!』하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깜깜하던 곳에 밝은 빛이 환하게 나타 났어요. 그 빛을 「낮」이라고 하

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어둠도 만드셨는데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첫날에 하신 첫째 일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었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 환 없는 넓은 곳이 푸른 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물들을 골고루 두기 위해서 여러곳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먼지가 하나도 없는 맑은 공기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여러곳에 있는 물을 뿜이게 하신 후에 그 이름을 『바다』라고 부른 다음 흙이 드러나는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다 장미, 채송화, 나팔꽃, 코스모스 같은 예쁜 꽃을 피게 하시고 사과, 밤, 대추 같은 맛있는 열매 나무와 여러가지 풀을 만드셔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날에 하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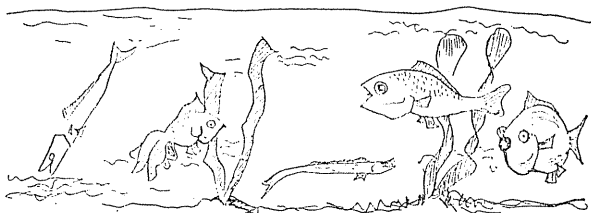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 넷째날에는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도 그 빛이 강한 하나에겐 낮을 맞키시고 조금 약한 하나에게 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을 구별하게 되었는데 그 낮 빛은 태양(해)이고 그 밤 빛은 달과 별이에요. 이것이 먼 옛날에 하신 네번째 일입니다.

다음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속에 사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각종 들 짐승으로 호랑이, 사자, 표범, 곰, 곤충(호랑나비, 잠자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 보셨습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고 공중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숲 속에 동물 들은 모두 즐겁게 뛰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이번에는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사람을 만드리라고 생각하신 후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외에 모든 생물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을 축하기 위하여 쉬셨어요. 그러므로 이때 부터 일곱째 날은 쉬는 날로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일요일)이라하여 교회에 가서 유년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지요.





## 일 반 용

몬물경	150원
물몬경(가족표지)	1,200원
물몬이란	100원
우정 프로그램	3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안	50원
찬송가	50원

##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	110원
기이한 업적 (상)	100원
기이한 업적 (하)	100원
말일성도란	100원
복음의 실천	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150원
성전중의 지도자	150원
주님의 멍세이지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교사 보조 교재)	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	10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150원

##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50원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50원
장미반 공과	100원
지도 원리	50원

##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	20원
인간과 하나님	100원
집사 고문 지도서	150원
회복된 성교회	100원

## 유년 주일학교

우리의 종교생활(상)	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	100원
주안에서 자라남	10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150원
어린이 찬송가	100원

圖書案内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 敎 本 部	清 雲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⑦③ 3995
東 部 支 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⑨② 1005
三 清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⑦② 3596
西 部 支 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⑦③ 1208
城 北 支 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⑨② 0744
新 村 地 域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③② 4279
永 登 浦 地 域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仁 川 地 域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대화제과 2층
大 田 地 域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② 6273
大 邱 中 央 支 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釜 山 支 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④ 7071
東 區 支 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光 州 地 域		광주시 금동 165번지 서울 건축재료상 2층

성도의 벗 通卷 第 26 號

定價 30 元

1967 年 10 月 15 日 發行

1 年 購 讀 料 250 元  
(郵 送 料 包 含)

發 行 人 裴 一 文

編 輯 人 洪 武 光

發 行 所 末 日 聖 徒 耶 穌 耶 穌 基 督 教 會 韓 國 宣 敎 本 部

印 刷 所 寶 晉 齋 印 刷 所